

곽 은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Gustav Mahler의 가곡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
의 피아노 반주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경 미

Gustav Mahler의 가곡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
의 피아노 반주 연구

곽 은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경 미

인 준 서

이경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후기 낭만파에서 근대에 이르는 과도기의 작곡가로서 후기 낭만주의를 근대음악으로 이끈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 1860~1911)의 「뤼케르트에 의한 5개의 노래(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에 관한 연구이다.

다섯 곡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내용상 각각 연관성은 없지만 작곡 연대가 1901~1902년에 집중되어 있고 모두 서정시에 곡을 붙인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으며 1905년에 「죽은 북치기(Revelge, 1889)」와 「소년 북치기(Der Tamboursg'sell, 1901)」 두 곡을 포함하여 <후기의 일곱 곡의 가곡(Sieben Lieder aus letzter Zeit)>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제 2곡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곡은 1905년 1월 29일 Wien의 작은 방에서 “관현악과 함께 하는 가곡의 밤(Lieder Abends mit Orchester)”이라는 이름으로 초연되었으며, 당시 「Ich atmet' einen linden Duft」→「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Um Mitternacht」순으로 연주되었음을 참고하여 그 순서대로 본 논문에 게재하였다.

첫 번째 곡 「Ich atmet' einen linden Duft」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 받은 보리수 가지의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사랑을 느끼는 주인공의 심경을 노래하는 곡이며, 두 번째 곡 「Liebst du um Schönheit」는 부인 알마(Alma Mahler : 1879~1964)에게 헌정한 사랑 노래로서 사랑을 아름다움, 젊음, 보물에 빗대어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을 위한 사랑을 해달라는 노래, 세 번째 곡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는 별들이 별집을 만들고 있을 때 엿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비유하여 자신이 작곡 중인 노래를 완성하기 전까지 미리 엿보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네 번째 곡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은 혼란스런 세상에서 멀리 떠나 자신만이 인식할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말리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다섯 번째 곡 「Um Mitternacht」는 한 밤 중에 깊은 번뇌에 사로잡힌 시인의 불안한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신(神)께 의탁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과 안도의 환희를 엄숙하게 노래한다.

말리는 가곡의 반주 매체를 피아노에서 관현악으로 바꾸어 종래의 예술 가곡과는 다른 규모의 음악을 선보였으며 19세기 가곡의 본질을 바꾸었다.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 1813~1883)의 발자취를 따르는 말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 1864~1949)는 세기의 전환기에 가장 저명한 관현악 지휘자였고, 관현악 편곡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가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하였고 실내악적인 규모보다 관현악의 다채로운 사운드와 음색에 적합한 웅장한 스타일로 작곡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심층 작곡 기법적인 측면을 분석하기보다 가사의 내용을 토대로 피아노 반주의 역할 및 적절한 표현 방식을 관현악 반주 악보와 함께 비교해 보는 데 역점을 두었다. 각각의 곡은 말리 자신에 의한 피아노 반주 악보와 관현악 반주 악보가 공존하지만 두 번째 곡 「Liebst du um Schönheit」만은 1916년 막스 푸트만(Max Puttmann : 1864~1935)에 의해 후에 관현악으로 편곡되었음을 주지하여 제 1, 3, 4, 5곡은 관현악 반주 악보를 먼저 게재한 후 피아노 악보를 게재하여 관현악적 색채를 토대로 한 시와

피아노 음색 연구에 집중하여 분석하였고 제 2곡은 말러 자신에 의한 관현악 편곡이 아니므로 관현악 악보는 게재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과정은 피아노 원곡인 제 2곡을 제외한 제 1, 3, 4, 5곡을 피아노 반주로 연주 할 때에는 시(가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관현악적 다양한 색채를 피아노의 입체적 표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심도 깊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의 반주 연구 | 3 |
| 1. 뤼케르트 시의 특징 | 3 |
| 2.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의 반주 연구 | 6 |
| (1) Ich atmet ' einen linden Duft! (나는 보리수의 향기를 맡네!) | 6 |
| (2) Liebst du um 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하세요) | 18 |
| (3)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 29 |
| (4)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 | 58 |
| (5) Um Mitternacht (한 밤 중에) | 90 |
| III. 결 론 | 125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말러(Gustav Mahler : 1860~1911)가 활동하던 시기의 음악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동경을 가진 신낭만주의(Neo-Romanticism)와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로 나뉘어 있었다. 말러는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진보주의적 음악가였다.

말러의 작품으로는 10개의 교향곡과 40여개의 가곡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상당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교향곡을 자신의 가곡에 기초하여 작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곡에 대한 그의 관현악 편곡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 1797~1828),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 1810~1856), 브람스(Johannes Brahms : 1833~1897)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전통적 가곡의 형태에 변화를 주었으며 또한 19세기 가곡의 본질을 바꿔 놓았을 뿐 아니라 후대 작곡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 1874~1951), 베르크(Alban Berg : 1885~1935), 베베른(Anton Webern : 1883~1945) 등이 나아갈 길을 암시해 주었다.

본 논문의 논제인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은 서정시인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 1788~1866)의 시에 말러가 곡을 붙였으며 제 2곡 「Liebst du um Schönheit」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러 자신에 의한 오케스트라 버전과 피아노 버전이 공존함을 근거하여 두 버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채택된 피아노 악보와 관현악 악보는 C.F.Kahnt

원전판이며 게재한 악보의 조성은 모두 원조(Original Key)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올바른 시의 번역을 통한 가사와 음악의 유기적 관계를 연구함과, 말러 가곡의 오케스트라 버전과 피아노 버전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피아노 반주 시에 풍부하고 다양한 음색을 내 고자 하는 노력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보다 심도 있는 작 곡 기법적 분석보다는 가사(詩)의 내용을 토대로 관현악 악보와의 비교를 통한 피아노로 표현해야 할 입체적인 음향과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II.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의 반주 연구

1. 뤼케르트 시의 특징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 1788~1866)는 1788년 독일의 슈바이푸르트(Schweinfurt)에서 태어나 1866년 노이세스(Neuss)에서 타계한 독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자 동양학자이다.

그는 뷔르츠부르크(Würzburg)와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괴팅겐(Göttingen)에서 법률과 언어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에어랑엔(Erlangen)대학에서 동양어 교수직과 베를린(Berlin)대학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1)

뤼케르트가 살았던 시대 중 1820년에서 1850년 사이의 불안했던 정치적 혼란 시기를 비더마이어(Bieder Meier)²⁾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독일어권에서 나타난 ‘비더마이어’는 보수적이고 사회 비평적 입장보다 소시민의 안락한 전원 생활을 추구하였다.

시인들도 3월 혁명 이전 시기(Vormärz)³⁾의 혼란스런 정치적 현실을 외면하고,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주제로 시작(詩作)을 했으며, 자연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뤼케르트 역시 이 시대의 대표적 시인으로서 서정적이고, 소박한 특징이 엿보이는

1) Stanley Sadie, "Rückert",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Vol.21, p. 859

2) 1830년을 기점으로 낭만적 경향이 사라지고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경향이 대두하게 된다. 이때의 문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비더마이어는 격동하는 정치와 사회적 투쟁을 외면하고, 가정적이며 소시민적인 정취에 잠기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3) 1815년부터 1848년 3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3월 혁명 이전 시기를 말한다. 이 당시 독일은 수십 개의 소공국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군주들의 전체정치결과 민중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되었고,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민중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었다.

시를 썼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세 독일어에 관심을 가져 연구가 활발했으며, 페르시아, 중국, 인도 등의 문학을 번역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뤼케르트는 언어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30여개의 언어에 능통하였으며, 동양 언어학을 연구하여 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의 시 가운데는 동양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 많이 있다.

작품으로는 애국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독일시집(Geharnischte Sonette, 1814)」, 동양의 고대 문학에서 본을 따서 시의 형식미를 추구한 「동방의 장미(Östliche Rosen, 1822)」, 중국시의 작품을 번역한 「브라만의 지혜(Die Weisheit des Bramanen, 1836~1839)」, 결혼 후 자신의 부인에게 헌정한 민요형태의 「사랑의 봄(Liebesfrühling, 1823)」, 이 외에도 「아그네스의 장례식(Agnes Totenfeier)」, 「아마릴리스(Amaryllis)」 등이 있다.

뤼케르트는 언어의 뜻보다는 그 울림을 더 중요시했는데 이런 시도나 생각은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 1842~1898) 등 다른 현대 시인보다 앞선 것이었다.

섬세하고 청정한 그의 시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비롯된 이국풍의 독창적이며 조용한 체념의 느낌을 준다. 4)

말러(Gustav Mahler : 1860~1911)는 이런 뤼케르트 시의 섬세한 서정성과 민속예술을 시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였으며5), 말러 이외에도 여러 작곡자들이 뤼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대표적인 작곡자와 작품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1).

4)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서울, 삶과 꿈, 2002, p.131

5) 이경숙, 위의 책, p.131

<표 1>

| 작곡가 | 곡명 | 작품번호 |
|---|---|---|
| 슈베르트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 Sei mir gegrüsst (내 인사를 받아주오) Dass sie hier gewisen(그대 여기 왔음을) Du bist dir Ruh(그대는 나의 안식) Lachen und Weinen(웃음과 울음) | op.20-1 op.59-2 op.59-3 op.59-4 |
| 슈만 (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 Widmung (헌정) Lied der Braut 1, 2 (신부의 노래) Aus den östlichen Rosen(동방의 장미로부터) Jasminenstrauch (자스민 숲) Schneeglöckchen(눈송이 종) Mein schöner Stern (아름다운 나의 별) | op.25-1 op.25-11,12 op.25-25 op.27-4 op.79-27 op.101-4 |
| 말러 (Gustav Mahler :1860~1911) | Kindertotenlieder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 (뤼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노래) | |
| R. 슈트라우스 (Richard Strauss :1864~1949) | Anbetung (열애) Nächtlicher Gang (밤의 노래) Fünf Gedichten von Rückert (5개의 노래) | op.36-4 op.44-2 op.46 |

이 이외에도 뢰케르트의 서정시는 브람스(Johannes Brahms : 1833~1897), 프란츠(Robert Franz : 1815~1892), 피츠너(Han Pfitzner : 1869~1949), 레거(Max Reger : 1873~1916), 볼프(Hugo Philipp Jakob Wolf : 1860~1903), 베르크(Alban Berg : 1885~1936) 등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⁶⁾

6) Stanley Sadie, "Rückert",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Vol. 21, p.859

2.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의 반주 연구

(1) Ich atmet' einen linden Duft! (나는 보리수의 향기를 맡았네!)

| | |
|--------------------------------------|------------------------|
| Ich atmet' einen linden Duft! | 나는 보리수의 향기를 맡았네! |
| Im Zimmer stand ein Zweig der Linde, | 보리수 꽃가지를 방에 꽂아두고, |
| Ein Angebinde von lieber Hand. | 사랑하는 이가 보내준 선물이라네. |
| Wie lieblich war der Lindenduft, | 얼마나 사랑스런 보리수 향기인가, |
| Wie lieblich ist der Lindenduft | 얼마나 사랑스런 보리수 향기인가 |
| Das Lindenreis brachst du gelinde! | 당신이 조심스레 꺾어온 보리수 나뭇가지! |
| Ich atme leis im Duft der Linde | 나는 조용히 보리수 향기를 맡는다 |
| Der Liebe linden Duft. | 사랑스런 보리수 향기를. |

이 곡은 말러의 중기 가곡으로서 뤼케르트 시의 특징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곡이다 (1901년 7~8월 作).

그의 초기 가곡들의 대부분은 피아노에 의한 반주였지만 1891년 이후 말러는 가곡의 반주매체를 피아노에서 오케스트라로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이 곡 역시 말러에 의한 오케스트라 악보와 피아노 악보가 함께 현존하고 있다.⁷⁾

전체적으로 보리수의 사랑스런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품 전반에 걸친 피아노의 8분음표 음형을 편안하게 relax시켜 진행해야 한다.

피아노 반주의 악보에선 시종 거의 같은 유형의 반주이지만,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를 보면 악기의 변화로 인한 음색 변화를 줌으로써 느낌을 달리 하고 있다.

7) Lorraine Gorrell, 「19세기 독일 가곡」,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8, pp. 86, 368

시의 구성에 따라 크게 A-B의 통작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 행의 각운은 1연 3행을 제외하고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 (표 2).

<표 2>

| 연 | 행 | 각운 | 유형 | 연 | 행 | 각운 | 유형 |
|---|---|------------------------------|----|---|---|------------------------------|----|
| 1 | 1 | Du <u>ft</u> | a | 2 | 1 | L <u>in</u> de <u>ndu</u> ft | a |
| | 2 | L <u>in</u> de | b | | 2 | g <u>el</u> in <u>de</u> | b |
| | 3 | H <u>an</u> d | c | | 3 | L <u>in</u> de | b |
| | 4 | L <u>in</u> de <u>ndu</u> ft | a | | 4 | D <u>u</u> ft | a |

템포는 Lento로써 느리고 여유있게, 그러면서도 열정적이며 애정을 담아서 (*Con molta tenerezza e fervore*) 연주한다.

이 곡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 형식 | 연 | 행 | 마디 | 조성 | 박자 | 빠르기 |
|----|---|---|---------|-----------|-----------------------------|-------|
| 도입 | | | 1 | D | 6/4 | Lento |
| A | 1 | 1 | 2 ~ 4 | D→b→D | 6/4 박자 (부분적으로 3/4박자와 교체) | |
| | | 2 | 5 ~ 9 | | | |
| | | 3 | 10 ~ 14 | | | |
| | | 4 | 14 ~ 17 | | | |
| B | 2 | 1 | 18 ~ 22 | D→B→E b→D | | |
| | | 2 | 23 ~ 25 | | | |
| | | 3 | 26 ~ 29 | | | |
| | | 4 | 30 ~ 33 | | | |
| 후주 | | | 33 ~ 36 | D | | |

1) A 부분 (제 1마디 ~ 제 17마디, 1 ~ 4행)

피아노의 왼손이 노래와의 일치된 합(合)을 예견하듯이 노래의 첫 음과 동음으로 시작된다. 나에게 불어올 ‘보리수의 은은한 향기’가 피어나가듯이 편안한 호흡을 하며 양손 모두 매우 여리고 (*ppp*) 부드럽게 힘을 풀어 연주한다.

이 때, 오케스트라 악보에서는 전주의 첫 음(A음)을 Fagot과 Horn이 부드럽게 연주하므로 피아노로 연주 할 때에도 팔을 유연하게, 이들 관악기의 울림을 연상하면서 부드럽게 띄워주듯이 시작한다.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에서 제 1~2마디의 Harp와 Celesta로 작곡된 부분(악보 1)과 피아노 반주 악보의 오른손 부분(악보 2)을 비교해 보면서 피아노는 이 두 악기의 음색을 연상하면서 매우 투명하게, 그리고 신선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연주한다.

노래가 4분음표의 진행으로 ‘나는 보리수의 향기를 맡았네(*Ich atmet' einen linden Duft*)’ 라고 여유롭게 흐르고 있으므로, 반주부의 계속되는 8분 음표 진행에 있어서도 향기가 은근하게 피어나가는 느낌을 살려주어야 한다.

(악보 1)에서 제 1, 3마디 Clarinet 파트의 8분 음표 움직임이 시의 1행이 끝나는 제 4마디 ‘*Duft*(향기)’ 부터는 약음기를 낀 Violin으로 바뀌게 되므로 피아노 반주의 오른손은 향기가 부드럽게 피어듯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제 22마디까지 계속하며(*sempre pp e legatissimo*), 제 4, 5마디 왼손은 제 5마디에 나오는 가사 ‘보리수 꽃가지를 방에 꽂아 두고(*Im Zimmer stand ein Zweig der Linde*)’ 를 음미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허하지 않고 견고하게, 짙찬 듯한 톤으로 연주한다.

<악보 1> 제 1마디 ~ 제 4마디 (나는 보리수 향기를 맡았네)

Sehr zart und innig. Langsam

1 Flöte

1 Oboe *ppp*

1 Klarinette in A *pp*

2 Fagotte *pp* *pp*

Horn I in F *pp* mit Dämpfer

Celesta *pp*

Harfe *ppp*

Violen *pp* mit Dämpfer

Singstimme
Ich at - me' el - nen lin - den Duft!

Violen *pp* Flag. ⁰ *pp* Flag. ⁰

Sehr zart und innig. Langsam

<악보 2> 제 1마디 ~ 제 9마디

(나는 보리수 향기를 맡았네. 보리수 꽃가지를 방에 꽂아두고)

Gesang *Sehr zart und innig. Langsam* *durchaus pp*

Ich at - met' ei - nen lin - den

Klavier *ppp* *p* *pp*

4

Duft! Im Zim - mer stand

sempre pp e legatissimo

7

ein - - - Zweig der Lin - - - de,

pp

시의 3행이 시작되는 제 10마디부터는 향기가 나는 보리수 가지를 준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며 시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더 구체화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달콤하고 부드럽게 부르던 노래는 제 12마디 ‘*lieber*(사랑하는)’의 첫 음절을 길게 끌다가 제 13마디 ‘*Hand*(사람)’로 반음 하행하였다가 감 5도 상행하는 등 갑자기 동요를 보인다⁸⁾. 이 때 피아노 반주도 조금씩 커지면서(*poco cresc.*) 연인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조금씩 더 표현해 준다.

제 14마디 후반부터는 시의 4행, 즉 사랑하는 사람이 준 보리수의 향기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때의 마음을 강조하여 한음한음 액센트(>)를 주었다가 이내 찾아들면서() 하행하는 노래 선율을 음미하면서 ‘*Wie*(얼마나)’를 함께 강조(>)해 준 후 함께 작아져() 제 15마디 *p*에 이르도록 한다. 제 12마디부터는 일시적으로 모호했던 반주의 조성 역시 원래의 조인 D장조로 돌아오는데, 제 15마디 성악 성부에 주어진 숨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짧은 순간 보리수 가지를 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감정적 동요를 보이던 노래가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고 감정을 수습하면서 ‘보리수 향기(*der Linden duft*)’를 부르는 부분이므로 이 때 피아노의 오른손은 흐름이 끊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악가의 유동적인 프레이징 마무리에 귀 기울여 함께 느끼며, 특히 제 16마디 ‘*Lin-den*(보리수)’을 노래할 때 단 7도 하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8) 김미애, 「독일 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 출판사, 1998, p.204

<악보 3> 제 10마디 ~ 제 17마디 (사랑하는 이가 보내준 선물이라네)

10

ein An - ge - bin - de -- von lie - ber Hand.

poco cresc. --

14

Wie lieb - lich war der Lin - den - duft!

p

dim.

pp

2) B 부분 (제 18마디 ~ 제 36마디, 5 ~ 8행)

1절과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B부분은 피아노 반주의 고음역이 돋보인다.

이 부분 선율은 오케스트라 악보에선 Oboe로 연주 된다. 잔향이 작으며, 예리하면서도 깊은 음색과 독특한 정서를 조성하는 목가적인 분위기의 Oboe⁹⁾의 음색을 연상하면서 피아노 반주에서의 오른손은 왼손의 작고 부드러운 흐름을 타고 솔로 악기와도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오른손의 선율과 노래의 선율이 함께 어우러지며 진행되는 이 부분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말리의 대위법적 기법을 보여 준다.

제 17마디에서 오른손이 먼저 사랑스런 분위기로 노래하면 노래 선율이 반주를 받아서 ‘*Wie lieblich ist der Lindenduft*(얼마나 사랑스런 보리수 향기인가)’ 를 노래하며 반주의 오른손과 노래가 서로 주고 받으며 사랑스런 분위기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 곡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8분음표의 음형은 노래가 시작되는 제 4마디부터 제 22마디까지 오케스트라 반주에서는 Violin으로 연주하다가 제 23마디부터 제 25마디까지 Viola로 옮겨가는데 이는 성악부의 가사 ‘*gelinde*(온화한, 조심스럽게)’ 처럼 튀지 않고 잘 융화되는 온화한 음색의 중음악기인 Viola를 씬으로 가사의 뜻 ‘조심스럽게, 온화한(*gelinde*)’ 을 더 호소력 있게 살려 주었으며 전조되는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우어 주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서는 Violin→Viola로 이어지는 현악기 군끼리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만 피아노의 양손을 오가며 성부가 서로 교환할 때, 특히 새로운 성부가 도입될 때 두드러지지 않고 하나의 선율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터치가 요구된다.

9) 김정태, 「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출판사, 1989, p.270

<악보 4> 제 17마디 ~ 제 25마디

(얼마나 사랑스러운 보리수 향기인가! 당신이 조심스레 꺾어온 보리수 나뭇가지!)

17 *dolce*

Ob.

Voce

duft, wie lieb - lich ist der - Lin - - - den

Vln.

21

Ob.

Fg.

cor. (F)

p

Arp.

voce

duft, — dasLin - den-reis brachstlu ge - lin - de!

Vln.

Vla.

pp

<악보 5> 제 17마디 ~ 제 21마디 (얼마나 사랑스런 보리수 향기인가!)

제 27~29마디 피아노의 오른손과 노래 선율이 동음으로 진행될 때 노래보다 크지 않게 유의하면서 피아노의 오른손은 조용히(*pp*) 표정을 담아서(*ausdrucksvoll*) 가사 ‘나는 조용히 보리수 향기를 맡는다(*Ich atme leis im Duft der Linde*)’ 를 함께 노래한다. 마지막 연의 ‘*Der Liebe linden Duft*(사랑스런 보리수 향기를)’ 에서 ‘*Liebe*(사랑)’ 는 단 3도 상행하면서 총 9박의 긴 소리로 처리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cresc.*시켜 주면서 보리수의 사랑스러움을 강조해 준 후 ‘*linden Duft*’ 에서는 갑자기 작아지는데(*subito pp*) 이때 제 16~17마디와 같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론가 퍼져가고 있는 보리수의 향기를 묘사하듯이 은은하게 표현해 준다. 특히 제 32마디의 ‘*linden*’ 은 피아노 반주의 왼손과 동음으로써 노래와 함께 맞추며 왼손의 *rolling*은 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bass*를 잘 울려준다.

<악보 6> 제 22마디 ~ 제 36마디

(당신이 조심스레 꺾어 온 보리수 나뭇가지!

나는 조용히 보리수 향기를 맡는다. 사랑스런 보리수 향기를)

22
das Lin - den - reis brachst du ge - lin - del

26
pp
ich at - me leis im Duft der Lin - de
ausdrucksvoll

30
der Lie - be lin - den
pp subito
cresc.
pp subito

33
Duft.
pp
pp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and piano piece, spanning measures 22 to 36. The score is written in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and a 4/4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includes the lyrics: 'das Lin - den - reis brachst du ge - lin - del' (measures 22-25), 'ich at - me leis im Duft der Lin - de' (measures 26-29), 'der Lie - be lin - den' (measures 30-32), and 'Duft.' (measure 33).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flowing sixteenth-note patterns in the right hand and more rhythmic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Dynamic markings include *pp* (pianissimo) at measures 26, 30, and 33, and *pp subito* at measures 30 and 33.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ausdrucksvoll* (expressive) at measure 27 and *cresc.* (crescendo) at measure 31.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t measure 36.

마지막 후주 제 33마디의 오른손은 B부분 시작(제 17마디)에서 나왔던 멜로디와 같지만, 오케스트라 반주의 제 17마디 Oboe와 달리 서정적이고 부드럽지만 흐름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Flute으로 편성함으로 말려 가곡의 특징인 서정성이 한층 돋보인다.

피아노의 왼손 반주는 곡 전반에 지속되던 동일한 형태의 반주유형으로 약음기를 끈 바이올린의 소리를 연상하며 잔잔하게 유지하였다가 제 35마디 둘째 박부터는 Harp → Celesta → 목관악기군(Fagot, Clarinet, Oboe, Flute)으로 상행하는 움직임의 두 가지 반주형태로 색채의 변화를 준다. 곡 중간에 바뀌었던 조성은 마지막에 이르러 원조인 D장조로 마무리 되지만 최고음인 B음이 지속되면서 완벽한 종결의 느낌보다는 향기가 퍼져나가듯 여운을 남기고 있으므로 서서히 사라지듯이(*morendo*) 마무리 한다 .

<악보 7> 제 33마디 ~ 제 36마디 (후주)

The musical score shows measures 33 to 36. Measure 33 is marked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33'. The Flute part begins with a melodic line marked *pzart* and *morendo*, leading to *ppp* dynamics. The Oboe, Clarinet (A), and Bassoon parts enter in measure 35 with *ppp* dynamics. The Celesta and Harp parts also enter in measure 35, with the Harp marked *p* and *ppp*. The Voice part is marked *Daft.* and the Violin part continues with a melodic line. The score ends at measure 35, with the number '35' written below the staff.

(2) Liebst du um 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하세요)

| | |
|--|---------------------------------------|
| Liebst du um Schönheit, o nicht mich liebe! | 날 사랑 말고 아름다움만 사랑하세요! |
| Liebe die Sonne, sie trägt ein gold'nes Haar! | 금빛 머리칼을 지닌 햇빛만 사랑하세요! |
| Liebst du um Jugend, o nicht mich liebe! | 날 사랑 말고 젊음만을 사랑하세요! |
| Liebe der Frühling, der jung ist jedes Jahr! | 봄을 사랑하세요, 해마다 젊은 봄을! |
| Liebst du um Schätze, o nicht mich liebe! | 날 사랑하지 말고, 보물만을 사랑하세요. |
| Liebe die Meerfrau, sie hat viel Perlen klar! | 빛나는 진주를 많이 가진 인어를 사랑하세요. |
| Liebst du um Liebe, o ja, mich liebe! | 사랑만으로 사랑한다면, 네, 나를 사랑하세요! |
| Liebe mich immer, dich lieb' ich immer, immerdar! | 날 영원히 사랑해주세요, 나도 그댈 영원히 사랑하리, 영원히! |

이 곡은 말리가 결혼한 첫 여름 휴가(1902년 8월)에 아내 알마(Alma Mahler : 1879~1964)에게 헌정한 사랑노래이다.

시기적으로 다섯 곡 중 가장 마지막에 작곡 되었으며, 다섯 곡 중 유일하게 피아노 반주를 위해 작곡된 곡이기도 하다. 나머지 네 곡은 모두 말리에 의해 오케스트라 반주와 피아노 반주 악보가 작곡되었지만, 1916년 막스 푸트만(Max puttmann : 1864~1935)에 의해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되었다.¹⁰⁾

사랑만을 위한 사랑을 하겠다는 내용의 노래인 만큼 시의 소재 또한 ‘*Schönheit*(아름다움)’, ‘*Sonne*(태양)’, ‘*Jugend*(젊음)’, ‘*Frühling* (봄)’, ‘*Schätze*(보물)’, ‘*Meerfrau*(인어)’ 등의 상징적 단어를 사용하여 시의 묘미를 살려준다.

이 노래는 6마디의 스트로프(Stroph)¹¹⁾가 4번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이며 마지막 스트로프는 확대되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10) Stanley Sadie, “Gustav Mahler”,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Vol.29, p.627

11) 시절(詩節), 연(聯), 단(段), 시의 구성 단위로서 몇 행의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단락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제 2 스트로프의 일부가 단조로 씌어진 것이나 최종 스트로프의 종결음이 6도 음의 A음인 것이 표현성의 강력함을 주고 있다.¹²⁾

짧지만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무려 19번의 박자 변화를 주고 있으나, 2절은 1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으며¹³⁾, 시의 반복되는 각운으로써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표 3).

<표 3>

| 연 | 행 | 각운 | 유형 | 연 | 행 | 각운 | 유형 |
|---|---|-------|----|---|---|----------|----|
| 1 | 1 | liebe | a | 2 | 1 | liebe | a |
| | 2 | Haar | b | | 2 | klar | b |
| | 3 | liebe | a | | 3 | liebe | a |
| | 4 | Jahr | b | | 4 | immerdar | b |

이 곡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 형식 | 연 | 행 | 마디 | 조성 | 박자 | 빠르기 | |
|----|-----|---|---------|----|---------|---|-----------------|
| 도입 | | | 1 ~ 2 | C | 3/4 | Innig ¹⁴⁾ (열정적인, 애정이 깊은) | |
| A | a | 1 | 1 | | 3 ~ 5 | | 2/4 → 4/4 → 2/4 |
| | | | 2 | | 6 ~ 8 | | 4/4 → 3/4 |
| | | | 3 | | 9 ~ 11 | | 2/4 → 4/4 |
| | | | 4 | | 11 ~ 14 | | 4/4 → 3/4 → 4/4 |
| 간주 | | | 15 ~ 16 | | 4/4 | | |
| A' | a'' | 2 | 1 | | 17 ~ 19 | | 2/4 → 4/4 → 2/4 |
| | | | 2 | | 20 ~ 22 | | 4/4 → 3/4 |
| | | | 3 | | 23 ~ 26 | | 2/4 → 4/4 → 3/4 |
| | | | 4 | | 27 ~ 31 | | 3/4 → 4/4 |
| 후주 | | | 31 ~ 34 | | 4/4 | | |

12) 전체국, 「탈러」, 서울, 음악세계, 2003, p.153

13) A (a) 와 A' (a) : 2/4 → 4/4 → 2/4 → 4/4 → 3/4
 A (a') 와 A' (a'') : 2/4 → 4/4 → 3/4 → 4/4

1) A 부분 (제 1마디 ~ 제 16마디, 1 ~ 4행)

8분 쉼표로 시작되는 피아노의 도입부는 시작하기 전 충분히 몸을 열어 깊은 애정을 담아(Innig) 첫 음을 다소 강조하듯이(>) 느껴주면서 자연스럽게 *decresc.*하여 노래로 부드럽게 이어준다.

C장조의 조성을 가지면서도 다소 G장조의 조성을 느끼게 해 주던 전주는 노래가 시작하면서 제 3~4마디 C장조 $V_7 \rightarrow IV_4 \rightarrow I$ 로 이어지면서 안정감을 준다.

제 3~6마디는 각각 중심단어 - 제 4마디 'Schönheit (아름다움)', 제 5마디 'liebe (사랑)', 제 6마디 'Sonne (태양)' - 를 향해 라인이 움직여 시어를 강조하여 주되 점차 Schönheit → liebe → Sonne로 갈수록 상행하여 점점 더 표현의 폭을 넓혀 가면서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으로 울림 있게 표현한다.

제 7마디 피아노의 오른손 내성과 왼손이 각각 반음계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노래와 반진행하여 제 8마디 'Haar' 를 향해 진행한다. 이 때 제 7~8마디의 오른손 윗 성부는 도입의 제 1~2마디에서 나왔던 선율과 동일하며, 제 13~14마디, 제 21~22마디, 제 27~28마디의 선율과도 동일하며 길이가 점차 확대되어 강조되고 있다.

14) International판에서는 Innig 대신 Con tenerezza를 주고 있다. 이는 '애정을 담아, 다정하게'란 뜻으로 원전 악보 C.F.Kahnt판에서의 Innig(열정적인, 애정이 깊은)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악보 8> 제 1마디 ~ 제 8마디

(날 사랑 말고 아름다움만 사랑하세요! 금빛 머리칼을 지닌 햇빛만 사랑하세요!)

Innig

Gesang

Klavier

Liebst du um Schön-heit, o nicht mich

5

lie - be! Lie - be die Son - ne, sie trägt ein gold'- nes Haar!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iece titled 'Innig'.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includes a vocal line (Gesang) and a piano accompaniment (Klavier).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rest, followed by the lyrics 'Liebst du um Schön-heit, o nicht mich'. The piano accompaniment begins with a piano (p) dynamic and features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a supporting bass line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5 and continues the vocal line with the lyrics 'lie - be! Lie - be die Son - ne, sie trägt ein gold'- nes Haar!'.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similar melodic and harmonic patterns. The score is written in a 2/4 time signature and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제 9~14마디는 짧은 문장 전환 속에서 시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와 함께 조성적 움직임이 일고 있음에 주목하여 잦은 느낌의 변화를 함께 표현해 주도록 한다.

A부분을 통 털어 가장 highlight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연코 제 12마디 ‘Frühling(봄)’이다. A부분의 중심어적인 ‘Frühling(봄)’은 A부분 중 가장 고음이면서도 *p*로 처리되어 있으며 음가도 2분음표로 길어져 강조되고 있다. 고음에서 *p* 또는 *subito p*는 가사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말러의 특징 중 하나로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 이 때 피아노의 아르페지오는 봄을 연상하며 부드럽게, 노래와 같은 호흡으로, 여리지만 충분히 강조하여 연주한다.

제 14마디의 ‘Jahr(해, 년)’는 커졌다가() 다시금 작아지며() 피아노 반주의 왼손 내성은 A음에서 A#음으로 반음계적으로 상행하여 노래와 반대로 점점 커져() 제 15마디에 이르러 오른손 내성인 B음으로 연결되며 작지만(*p*) 깊이 있는 소리로 표현한다. 또한 ‘Jahr’는 G음에서 F#음으로, 제 15마디의 피아노 반주 오른손 윗 선율인 F음으로 하행하여 반음계적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피아노 간주는 노래 파트에 연결하여 하나의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받아 풍부한 감정으로 노래한다.

간주 제 15마디는 *p*로 시작하여 점점 커짐()으로 제 16마디의 첫 박인 V도화음의 액센트(>)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가 다시금 작아져() 2절을 준비한다. 이 때 제 16마디 약박의 액센트(>)는 곡의 흐름상 두드러지지 않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여유 있게 테누도 하듯 연주한다.

<악보 9> 제 9마디 ~ 제 16마디

(날 사랑 말고 젊음만을 사랑하세요! 봄을 사랑하세요, 해마다 젊은 봄을!)

9

Liebst du um Ju - gend, o nicht mich lie - be! Lie - be den Früh - ling,

13

der jung ist je - des Jahr!

2) A' 부분 (제 1마디 ~ 제 34마디, 5 ~ 8행)

제 17마디는 간주에 이어지는 유형의 반주로 1행과 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노래와 다시 만나면서 제 22마디까지 1행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제 17~19마디 'Schätze (보물)', 'liebe(사랑)' 는 모두 강박에 오지만 *p*로 처리되어 사랑의 비유적 표현을 속삭이는 듯이 강조를 한다.

전체적으로 1절보다 2절의 악상이 더 여리며 이것은 노래를 더욱 강조할 때 말러가 즐겨 쓰던 기법으로 2절에서 노래가 점점 고조 되어 가고 있음을 말한다.

시의 6행인 제 20마디는 오른손 윗 선율과 아랫 선율, 노래성부가 모두 동음으로 움직이며 점점 크게 하여 'Meerfrau(인어)' 에서 액센트(>)를 주어 시어를 강조한 후 제 21마디까지 다시금 작아진다. 이 때 제 22마디 'klar' 는 단어의 뜻(맑은, 빛나는)을 살려 복잡하지 않은 깨끗한 톤으로 윗 성부를 살리되 성악 성부보다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

<악보 10> 제 17마디 ~ 제 22마디

(날 사랑하지 말고, 보물만을 사랑하세요. 빛나는 진주를 많이 가진 인어를 사랑하세요.)

17
Liebst du um Schät - ze, o nichtnich lie - bel

17
Lie - be die Meer - frau, sie hat viel Per - len klar!

제 23마디는 감정을 한 층 더 강조하여(*steigernd*)¹⁵⁾ 음들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진행시키면서 제 6마디 *Sonne*(♩♩), 제 12마디의 *Frühling*(♩♩), 제 20마디의 *Meerfrau*(♩♩), 제 25~26마디 *Liebe*(♩♩)와 동일한 F²음과 E²음의 길이가 확장되면서 시의 극적인 내용이 최고조에 이른다. 클라이막스인 제 25~26마디 ‘*liebe* (사랑)’는 그러나 여린(*p*) 가운데 표현의 폭을 조절()하여 부르므로 피아노 반주도 여유 있게 rolling하면서 왼손 bass를 울려

15) *steigernd* 는 ‘(감정을) 강화하다. 격화시키다. (속도를) 올리다.’ 라는 뜻으로 감정을 한 층 더 표현하여 주며, International판에서는 *steigernd* 대신 *allargando* (크레센도 하면서 폭넓게)를 사용한다.

주고 오른손 윗 성부는 사랑만을 위한 사랑을 해 달라고 노래와 일치된 호흡으로, 그러나 아주 작게(*pp*) 속삭인다.

제 27마디는 ‘*Liebe mich immer*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세요)’의 간절함을 담아 노래가 모든 음들을 강조하여(>) 부를 때 피아노는 하나의 라인으로 해 주고, 이어지는 제 28마디 ‘*immer*’는 원시(原詩)에 없던 것을 말러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왼손 bass를 충분히 울려주면서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을 음미하며 2박씩 충분히 느껴준다.

제 29마디는 마치 하나의 산을 그리듯 ‘*immer*’를 향해 점점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져(*p*) 가늘고 섬세하며 부드럽게(*zart*)¹⁶⁾ 2박 반의 긴 박을 노래하는데 이 때 ‘*immer*’부터 피아노 반주의 오른손 윗 선율은 노래보다 3도 위로써 노래와 하나가 되어 이중창처럼 어우러져 연주한다.

후주는 제 31마디 노래의 마지막음인 A음과 자연스럽게 포개지면서 반음계로 하행하여 작아졌다가() 제 32마디 2박까지 연결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맹세하듯 E음에 액센트(>)를 넣어 *rubato*시켜 준 후 제 33마디 2박에서 다시 한 번 더 *rubato*와 함께 E음의 액센트(>)로써 사랑의 맹세를 굳건히 다짐한다. 그리고는 4박 Bass G음을 깊이 있으면서도 크지 않게, 마지막 시어인 ‘*immerdar*(영원히)’를 음미하면서, 이어지는 제 34마디 마지막 C음은 영원에 도달하는 느낌을 담아 더욱 깊은 소리로 종결한다.

전체적으로 피아노 반주와 노래는 일체감을 가지고 주고 받아 노래 전체가 하나의 큰 프레이징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며 5개의 가곡 중 피아노를 위한 유일한 가곡이므로 피아노의 맑고 영롱한 음색으로

16) International판에서는 *dolce* 로 표기하고 있다.

사랑을 갈구하도록 한다. 또한 바그너의 영향으로 곡 전반에 걸쳐 사용된 반음계를¹⁷⁾ 부드럽게 *legato* 하여 프레이징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반음계적 화성의 묘미를 살려주도록 한다.

<악보 11> 제 23마디 ~ 제 34마디

(사랑만으로 사랑한다면, 네, 나를 사랑하세요!

날 영원히 사랑해주세요, 나도 그댈 영원히 사랑할게요, 영원히!)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3 to 26,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7 to 30. The vocal line is written in a single staff with lyrics underneath. The piano accompaniment is written in two staves (treble and bass clef).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accents, and dynamic markings. The lyrics are in German and are partially obscured by the musical notation.

(악보 계속)

17) Hainz Becker, 「음악의 유산(Hertige of Music)」, 서울, 중앙일보사, 1986, p. 141

31

dar!

31

Detailed description: This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oice and piano. The top staff is a single treble clef line for the voice, containing four measures of rests followed by a fermata. The word "dar!" is written below the first measure. The bottom system consists of two staves for the piano, a treble and a bass clef. It begins with measure 31, marked with a fermata. The piano part features complex textures with chords, arpeggios, and melodic lines in both hands, including accents and slurs. The piece concludes with a final chord and a fermata in the bass staff.

(3)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Meine Augen schlag' ich nieder,
Wie ertappt auf böser Tat!
Selber darf ich nicht getrauen
Ihrem Wachsen zuzuschauen!
Deine Neugier ist Verrat!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나의 눈을 내려 깔며,
마치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 같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성장을 지켜 봐 주세요!
당신의 호기심은 배반이 됩니다!

Bienen, wenn sie Zellen bauen,
Lassen auch nicht zu sich schauen,
Schauen selbst auch nicht zu!
Wenn die reichen Honigwaben
Sie zu Tag gefördert haben,
Dann vor allen nasche du!

벌들도, 집을 지을 때는,
역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들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풍성한 벌집이
햇빛에 나타났을 때에,
당신에게 첫 번째로 그 맛을 드리겠어요!

이 곡은 5개의 노래 중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졌으며(1901년 7월 作), 말러의 초기 가곡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악곡의 규모도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깊은 표현을 더하고 있다¹⁸⁾.

연인을 위해 작곡 중인 노래를 중간에서 엿듣지 말라는 것을 벌(Bienen)이 벌집(Honigwaben)을 만드는 것에 빗대어 애원하는 듯 부르는 사랑스런 노래이다.

알마(Alma Mahler : 1879~1964)나 나탈리(Bauer-Lechner Natalie : 1858~1921)는 말러가 그의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 종종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하며¹⁹⁾, 말

18) 「최신명곡해설전집」 Vol. 4,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1983, p.318

19) www.mahlerfest.org

리는 나탈리에게 “이 시는 꼭 자기 자신이 쓴 것 같이 자기 심정을 잘 표현해 준다” 20)고 전한다.

템포는 Sehr lebhaft로 다른 곡들과 달리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 알라 브레베(alla breve)가 끝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생동감 넘치며 경쾌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곡 전반에 걸친 8분 음표는 악기 편성을 참고하여 음색의 변화를 주며 무겁지 않게 연주한다.

시의 구성은 2연 12행이며, 반복되는 각운은 다음과 같다 (표 5).

<표 5>

| 연 | 행 | 각운 | 유형 | 연 | 행 | 각운 | 유형 |
|---|---|-------------|----|---|---|------------|----|
| 1 | 1 | Lieder | a | 2 | 1 | bauen | c |
| | 2 | nieder | a | | 2 | schauen | c |
| | 3 | Tat | b | | 3 | zu | d |
| | 4 | getrauen | c | | 4 | Honigwaben | c |
| | 5 | zuzuschauen | c | | 5 | haben | c |
| | 6 | Verrat | b | | 6 | du | d |

음악은 A, B 두 부분으로 나뉘며 시의 같은 각운에 공통된 음정은 없으나 동일한 음가(↓, ↓↓)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곡의 음악적 형태에 따른 형식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6).

20) 이경숙, 앞의 책 p.138

<표 6>

| 형식 | 연 | 행 | 마디 | 조성 | 박자 | 빠르기 |
|----|---|------------|---------|------------|-----|---|
| 전주 | | | 1 ~ 7 | F | 2/2 | Sehr lebhaft ²¹⁾ (매우 빠르게) |
| A | 1 | 1 ~ 3 | 8 ~ 16 | F→d | | |
| | | 4~5(1행 반복) | 17 ~ 28 | A b →f→A b | | |
| | | 6 | 29 ~ 34 | F | | |
| A' | 2 | 1 ~ 3 | 35 ~ 43 | F→d | | |
| | | 4 ~ 6 | 44 ~ 55 | A b →f→A b | | |
| | | 6행 반복 | 56 ~ 59 | F | | |
| 후주 | | | 60 ~ 66 | F | | |

21) International판에서는 *molto vivo*로 표기하고 있다.

1) A 부분 (제 1마디 ~ 제 34마디, 1 ~ 6행)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에서 전주는 Clarinet과 약음기를 낀 Cello가 일치된 하나의 소리로 매우 여리게(*pp*) 8분음표로 고르게 움직인다. 8분 음표는 곡 전반에 걸쳐 계속하여 나오는데, 이것은 B부분의 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듯하다.

제 2~3마디 꾸밈음은 Oboe와 Flute이 약하지만(*pp*) 액센트(>)를 주며, 제 4마디 멜로디는 제 1,2 Violin이 더해져 나오며 꿀벌의 날아오르는 모습을 연상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특히 제 4마디부터 약음기를 낀 Violin과 겹쳐지면서 Violin 선율이 주선율이 되어 이전보다 조금 더 강조(*mp sf*)되어 노래한다.

제 5~6마디 제 3막은 오른손이 D \flat →E음으로 2도 상행하는데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를 참고하면 제 6마디 제 3막 D \flat 음부터 Fagot과 Cello로 변하면서 D \flat 음에 *sf*가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피아노 악보의 왼손 8분 음표 진행상에는 계속적인 큰 흐름의 *legato*이지만 제 6마디 D \flat 음은 다소 강조하듯 *tenuto*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곡 시작부터 계속되는 왼손의 8분 음표는 *p*이며 오케스트라 반주는 *pp*이다. 그리고 제 2~3마디 오른손 꾸밈음도 오케스트라의 있던 액센트(>)가 없으며, 악상 또한 오케스트라에선 *pp*, 피아노 반주에서는 *p*로 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아노 반주 악보의 악상과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의 악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오케스트라 악보의 다이내믹의 변화가 더 많음을 참조하여 악상의 변화와 악기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여 피아노 반주 시에 효과적으로 표현해준다.

<악보 12 - 1> 제 1마디 ~ 제 7마디 (전주)

Schr lebhaft

1 Flöte

1 Oboe

Klarinette in B

1 Fagott

1 Horn in F

Harfe

Violin I

Violine II

Viola

Singstimme

Violoncelli

Schr lebhaft

<악보 12 - 2> 제 1마디 ~ 제 7마디 (전주)

Sehr lebhaft

5

노래는 힘차게 동그라미를 그리듯 활기를 가지고 탄력 있게 시작한 다(*mit Schwung*)²²⁾.

피아노 반주의 왼손으로 계속되던 8분 음표는 노래가 시작하는 제 8~10마디에 와서는 오른손으로 바뀌는데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약 음기를 낀 Viola로 음색이 바뀌는 것을 참고하여 이전보다 더 *legato*하여 노래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가 잘 들리도록 해 준다. 특히 첫 시어인 ‘*Blicke*’도 단모음이므로 짧게 발음하며 피아노 오른손 반주도 전주의 느낌과 달리 간결한 느낌을 유지하며 왼손 스타카토는 Cello가 피치카토 하듯이 무겁지 않게, 울림을 생각하여 경쾌한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한다.

시의 행이 바뀌는 제 11~14마디의 피아노 오른손 반주는 ‘눈길을 아래로 내리듯(*Meine Augen schlag’ ich nieder*)’ 하행하여 시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표현하며 두 음씩 이음줄(*Slur*)로 묶여 있는 노래의 선율과 3도 아래로 어울려 질 수 있도록 노래를 잘 들으며 함께 호흡을 맞춰 연주한다.

제 15~16마디는 ‘마치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Wie ertappt auf böser Tat*)’ 놀란 모습을 각각 8도와 6도 상행 도약하여 매우 여리게(*pp*) 노래하므로 피아노 반주의 오른손에서도 노래와 동음으로 연주되는 이 도약 선율을 Flute와 Oboe의 가늘고 가벼운 톤을 연상하여 표현한다.

22) International판에서는 *enfatico*(과장되게)로 표기하고 있다.

<악보 13 - 1> 제 8마디 ~ 제 16마디

(내 노래를 잊보지 마세요! 나의 눈길을 내립니다.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8

Flute

Oboe

Hr.

Hfe.

VI.

Viola

Sgat.

Vcll.

p

p

p

pp

pp

pp

[mit Schwung]

Bli - ck mir - nicht in die Lie - der! Mei - ne - Au - gen - schlag' ich nie - der, wie er - tappt auf bö - ser Tat!

pizz.

<악보 13 - 2> 제 8마디 ~ 제 16마디

(내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나의 눈길을 내립니다.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Mit Schwung

8 Bli - cke mir nicht in die Lie - - - der!

11 Mei - - ne - - Au - - gen - - schlag' - - ich - -

14 *pp* nie - - - der, *pp* wie er - tappt auf bö - ser Tat!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measures 8-10) features the vocal line with lyrics 'Bli - cke mir nicht in die Lie - - - der!' and piano accompaniment with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The second system (measures 11-13) features the vocal line with lyrics 'Mei - - ne - - Au - - gen - - schlag' - - ich - -' and piano accompaniment with a similar rhythmic pattern. The third system (measures 14-16) features the vocal line with lyrics 'nie - - - der, wie er - tappt auf bö - ser Tat!' and piano accompaniment with a similar rhythmic pattern. The piano part includes dynamic markings 'pp' (pianissimo) at measures 14 and 15.

제 17~21마디는 제 15~16마디의 C# 과 이명동음인 D b 이 공통적으로 나와 F장조였던 앞의 조성에서 A b 장조와 f단조로 바뀌었으며 노래도 당신이 내 노래를 엿보면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 한다 (*Selber darf ich nicht getrauen*)’는 결과를 말해 주면서 노래의 색채도 자연스레 바뀐다.

피아노 반주의 오른손은 오케스트라의 제 1, 2 Violin이 함께 앙상블을 이루는 부분으로 현의 느낌을 살려 *legato*하여 주며, 특히 제 17~21마디는 반주와 노래가 서로 모방하면서 움직이며 하행하는 4음 음계(*tetrachord*)²³⁾가 제 17마디 E b → D b → C → B b, 제 19마디 F → E b → D b → C, 제 21마디 피아노 악보에서는 생략된 Flute과 Oboe의 대선율 G → F → E b → D b 으로 점차적으로 상행하는데 ‘마치 성장을 지켜 봐 달라는 듯 (*Ihrem Wachsen zuzuschauen!*)’ 점점 느낌을 키워 간다.

제 17마디 첫 박은 액센트(>)와 스포르잔도(*sf*)를 주었다가 제 18마디에서는 곧바로 *pp*하여 마치 반주와 노래가 주고 받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며 제 19~20마디도 같은 형태이다.

제 21마디는 오케스트라 원전 악보와 피아노 원전 악보에서의 노래선율이 다르며 피아노 원전 악보에서의 노래선율이 오케스트라의 제 1 Violin과 같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 22~23마디 간주 부분의 오른손은 제 21마디에 생략되었던 Flute과 Oboe의 선율을 연상하며 C음으로 연결하여 제 24마디부터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말라(*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는 1행이 한 번 더 반복되어 강조됨을 예견하여 생기 있는 터치가 요구된다.

23) 본래의 뜻은 4현이지만, 그리스의 4현 악기, 양끝이 완전 4도를 이루는 연속 4도, 완전 4도 등도 뜻한다.

이 두 마디 각각의 제 3박의 액센트(>)는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제 1, 2 Violin의 트릴로 더욱 강조(>)됨을 피아노 반주 시 떠올리며 트릴처럼 음이 지속되듯 눌러준다.

제 24~26마디는 곡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나오던 8분 음표 반주의 리듬이 바뀌어 원시(原詩)에 없던 시의 1행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내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가 반복되어 강조되는데 협화→불협화→협화로 이어지는 반음계적 화성의 변화를 느껴주되 지나치게 부각되지는 않게 하며 오른손은 속삭이듯(*pp*) 가볍게 하여 준다.

제 26~28마디는 성악 성부의 C→E^b(단 3도), 피아노 오른손의 C→F^b(감 4도), C→F(완전 4도)로 이어지면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음정 구조로서 뒤이어질 가사 ‘당신의 호기심은 배반입니다(*Deine Neugier ist Verrat!*)’ 라는 시의 내용을 향해 마디 단위로
의 폭을 넓혀 가 준다.

이 곡에서의 종결 형태는 음악적으로 세 군데로 나뉘지는데, 각각의 종결 형태가 8분음표의 아르페지오로 두 박을 펼쳤다가 제 3박에 와서는 여러 악기가 피치카토 형태의 화음으로 합쳐지는 양상을 띄며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 되는 지점은 제 28마디이다.

<악보 14 - 1> 제 17마디 ~ 제 28마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성장을 지켜 봐 주세요.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17

Fl.

Ob.

VI.

Vla.

Sgst.

Voll.

pp

p

Sel-ber darf ich nicht ge-trau-en ih-rem Wachsen zu - zu-schau-en!

(악보 계속)

Fl. *p sf sf*

Ob. *p sf sf*

Kl. *sf sf*

Fg. *pp sf sf*

Hr.

Hfe. *ff*

Vi. *sf pp pizz. sf sf*

Vla. *pp pp pp sempre*

Sgst.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Vcl. *pp arco pizz. sf sf*

<악보 14 - 2> 제 17마디 ~ 제 28마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성장을 지켜 봐 주세요.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17

Sel - ber darf ich nicht ge - trau - en ih - rem Wach - sen

21

zu - zu - schau - en! Bli - cke mir

25

— nicht in die Lie - der!

제 29~30마디 ‘*Deine Neugier* (당신의 호기심)’의 오른손 최고 선율은 Flute와 Oboe가, 노래와 동음인 오른손 내성은 Horn으로써 윗 성부와 아랫 성부가 서로 다른 음색의 결합에 의한 조화를 이루도록 두 성부간의 음색의 차이를 연상하여 표현하며 왼손의 8분 음표는 곡 전반에 걸쳐 거의 피치카토로 나오던 Cello가 활을 사용하므로(*arco*) 제 29마디부터는 좀 더 넓은 느낌을 가진다.

제 29~30마디의 노래성부는 4분 음표를 2개씩 이어(*Slur*) ‘*Deine Neugier* (당신의 호기심)’를 작고 부드럽게 부른 후 제 31~32마디는 ‘*ist Verrat*(배반입니다)’는 앞과 대조적으로 점점 강조하여 특히 ‘*Verrat*’의 자음이 강하게 발음되는 것에 느낌을 같이 하여 피아노 반주도 제 29~30마디와 제 31~32마디를 대조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면서 노래와 함께 점점 해 준다.

즉, 제 31마디 제 2, 3박의 왼손 C음을 제 4박의 오른손 F음이 받아 제 32마디 제 1박의 G음으로 연결되며, 다시 반복되는 제 32마디 제 2, 3박의 왼손 C음을 제 4박의 오른손 G음이 받아 이어지는 제 33마디 왼손 A b → F → G → A b 음과 제 34마디 왼손으로 연결해 주듯 자연스럽게 주고 받아 노래와 함께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여 준다. 제 33~34마디 피아노의 오른손은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멜로디가 도약하고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에서 제 1 Violin의 주된 멜로디임을 감안하여 왼손보다 충분히 더 여유롭게 , *legato*하여 노래해준다.

<악보 15 - 1> 제 29마디 ~ 제 34마디 (당신의 호기심은 배반입니다.)

29

Fl. *pp*

Ob. *pp*

Hr. *pp*

VI. *p*

Vla. *pp*

Sgst. *arco*

Vcll. *arco* *pp*

Dei - ne Neu - gier ist Ver-rat, ist Ver-rat!

<악보 15 - 2> 제 29마디 ~ 제 34마디 (당신의 호기심은 배반입니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iece titled "Your Curiosity Betrays You" (당신의 호기심은 배반입니다.).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covering measures 29 to 34. The first system (measures 29-31) features a vocal line with the lyrics "Dei - - - ne - - - Neu - - - gier - - - ist Ver - rat,"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measures 32-34) continues the vocal line with the lyrics "ist Ver - rat!" and the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consists of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and chords in the right hand.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2) B 부분 (제 35마디 ~ 제 66마디, 7 ~ 12행)

A부분과 같은 멜로디의 리듬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오며 반주부도 앞의 피치카토와 달리 *legato*로 연결되어 진행된다.

시의 7행인 제 35~37마디의 오른손은 오케스트라 악보에서는 제 1 Violin이 연주하는데 마치 ‘벌들이 집을 지을 때 (*Bienen, wenn sie Zellen bauen*)’ 내는 소리를 묘사하듯 매우 여리게 (*pp*) 작은 움직임으로 표현 한다. 왼손은 Viola와 Cello의 중저음을 연상하여 작지만 (*pp*) 가볍지 않은 소리로 울림 있게 오른손과 같이 하행 한다.

제 38~41마디는 A부분 11~14마디와 같은 멜로디지만 첫 마디인 제 38마디는 반주가 노래를 대신하였다가 제 39마디 노래로 이어진다. 이 때 제 38마디는 전후(前後)의 음악적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오른손의 멜로디를 한음한음 강조하여(>) 준 후, 시의 7행과 8행이 잘 연결되도록 유연하게 이어 나간다.

제 39마디는 노래선율과 오케스트라의 제 1 Violin이 유니즌하며 제 2 Violin 3도, 6도 위아래의 화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노래하는 부분이다. 피아노의 왼손도 Cello에서 제 2 Violin으로 바뀌며 음역이 좁혀져 제 40~41마디에서 오른손이 성악 성부와 유니즌으로 함께 노래하는데 가사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Lassen auch nicht zu sich schauen*)’ 는 일치된 감정으로 음미하면서 연주한다.

제 42~43마디는 벌들도 집을 지을 때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벌들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 (*Schauen selbst auch nicht zu!*)’을 8도와 6도 상행 도약을 통해 강조하는데 피아노의 오른손은 Flute와 Oboe가 노래와 동음으로 진행하듯이 부드러우면서도 투명하게, 왼손 제 1박과 제 3박의 변화하는 D→C#→Bb

→A음들은 Harp의 음색을 연상하며 현을 튕기듯이 부각시켜 준다.

<악보 16 - 1> 제 35마디 ~ 제 43마디

(벌들도 집을 지을 때는, 역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들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even staves. The top staff is for Flute (Fl.), followed by Clarinet (Kl.), Bassoon (Fg.), Violin (Vl.), Viola (Vla.), Soprano (Sgst.), and Cello (Vcl.).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Measure 35 is marked with a '35' above the Flute staff. Dynamics include *p* (piano) for the Flute and Clarinet, and *pp* (pianissimo) for the Violin. The Soprano part has the lyrics: "Bie - nen, wenn Sie Zel - len bau - en".

(악보 계속)

39

Fl.

p

Kl.

Fg.

39

VI.

pp

Vla.

pp

39

Sgst.

las - sen auch nicht zu -- sich -- schau - en, schau - en selbst auch nicht zu!

39

Vc.

<악보 16 - 2> 제 35마디 ~ 제 43마디

(벌들도 집을 지을 때는, 역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들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35
Bie - nen, wenn sie Zel - len bau - - - en,

This system contains measures 35, 36, and 37. It features a vocal line in the upper staff and a piano accompaniment in the lower staff.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German: "Bienen, wenn sie Zellen bauen,".

38
las - sen auch nicht zu - sich -

This system contains measures 38, 39, and 40. It features a vocal line in the upper staff and a piano accompaniment in the lower staff.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German: "lassen auch nicht zu sich -".

41
schau - - - en, schau - en selbst auch nicht zu!

This system contains measures 41, 42, and 43. It features a vocal line in the upper staff and a piano accompaniment in the lower staff.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German: "schauen, schauen selbst auch nicht zu!".

제 44~48마디 ‘*Wenn die reichen Honigwaben Sie zu Tag gefördert haben* (풍성한 벌집이 햇빛에 나타났을 때)’은 멜로디가 같은 A부분의 제 17~21마디처럼 대조적인 악상을 사용하지 않고, 크지는 않지만 앞과 일관된 음량으로 두 마디씩 순차 진행하여 상행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햇빛에 드러나는 기쁨을 표현하듯이 풍성한(*reichen*) 음색으로 표현한다.

제 49~50마디 간주의 제 3박 A b 음과 B음은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제 1 Violin의 트릴로 지속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다소 강조(>)하여 눌러주며 특히 이어지는 제 50마디는 제 51마디부터 A b 장조로 조성이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 조금 여유롭게 처리하여 준다.

이 시의 마지막 행인 제 51~55마디는 완성된 훌륭한 꿀단지의 맛을 ‘당신에게 처음으로 드리겠다(*Dann vor allen nasche du!*)’는 내용으로 제 51마디 오른손 첫 음과 셋째 박을 가볍게 끊었다가 다시 제 52마디에 와서는 노래보다 3도 위의 선율로 함께 *legato*하므로 페달의 울림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바치고자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 사랑스럽게 노래한다.

제 54~55마디 간주는 제 53마디에 이어 반음씩 상행하는 제 3박을 향해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이 때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제 3박의 2분 음표는 제 1, 2 Violin과 Viola, Cello의 피치카토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강하고 경직된 소리보다는 울림을 생각하여 특히 왼손 코드 음량은 크지만(*f*) 띄워주듯 표현해준다.

8분음표의 아르페지오로 두 박 펼쳐졌다 제 3박에 와서는 여러 악기가 피치카토 형태의 화음으로 합쳐지는 제 54~55마디는 두 번째 부분이 마무리 되는 부분이다.

<악보 17 - 1> 제 44마디 ~ 제 55마디

(풍성한 벌집이 햇빛에 나타났을 때에, 당신에게 첫 번째로 그 맛을 드리겠어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The instruments are Flute (Fl.), Oboe (Ob.), Horn (Hr.), Harp (Hfe.), Violin (Vl.), Viola (Vla.), Saxophone (Sgst.), and Cello (Vcl.).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dynamics (p, pp, sf), articulation (>), and phrasing slurs. The lyrics are written in German below the Saxophone staff.

Lyrics: Wenn die rei-chen Ho-nig-wa-ben sie zu Tag-ge-för-der-t ha-ben,

(악보 계속)

30

Fl.

Ob.

Kl.

Fg.

Hr.

Hfc.

Vl.

Vla.

Sg.st.

Vcl.

dann vor Al - len na - sche du,

pp

p

ff

p < *sf*

pizz.

sf

f

<악보 17 - 2> 제 44마디 ~ 제 55마디

(풍성한 벌집이 햇빛에 나타났을 때에, 당신에게 첫 번째로 그 맛을 드리겠어요!)

Wenn die rei - chen Ho - nig - wa - ben . sie zu Tag ge - för - dert ha - ben,

This system contains measures 44 through 48. It features a vocal line with lyrics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consists of a steady eighth-note pattern in the left hand and a more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49 dann vor Al - - - len na - sche

This system contains measures 49 through 52.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the lyrics. The piano accompaniment maintains the same rhythmic pattern as the previous system.

53 da, _____

This system contains measures 53 through 55. The vocal line has a short phrase 'da,' followed by a long line indicating a continuation of the melody.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same rhythmic pattern.

시의 12행을 반복하는 제 56~59마디는 오른손 제 1, 2박은 *Slur*로 이어졌다가 제 3, 4박은 한 음 한 음 눌러주듯이 *tenuto*하여 두 박씩 대조적인 느낌을 가지며 특히 제 58마디와 59마디는 상행하는 것을 제 58마디 제 3, 4박의 오른손 F→F#를 살려주어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고조시켜 준다.

후주 제 60마디는 제 2박을 향해 도약하여 강조(>)되었다가 진행되며 제 62~63마디 오른손 트릴은 첫 음을 눌러 강조(*sf*)했다가 곧 relax시켜 별집을 완성하기 위해 별이 날아다니는 느낌을 가지며 자유롭게 표현한다. Viola의 8분음표 음형이 제 63마디 왼손 제 3박의 D \flat 음부터 약음기를 켜 Cello로 바뀌어 강조(*sf*)했다가 이내 잣아들어 제 65마디에 와서는 Harp로 바뀌어 맑고 투명한 음색을 연상하여 색채감을 준다. 제 65~66마디 Horn의 B \flat →A→G→F음으로 순차 하행하는 주 멜로디를 양손이 번갈아 가며 강조하는데 마치 한 손으로 하듯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준다.

<악보 18 - 1> 제 56마디 ~ 제 66마디

(당신에게 첫 번째로 그 맛을 드리겠어요! + 후주)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The top four staves are for woodwinds: Flute (Fl.), Oboe (Ob.), Clarinet (Kl.), and Bassoon (Fg.). The next two staves are for strings: Violin (Vl.) and Viola (Vla.), both marked 'arco' and 'pp'. The seventh staff is for the Singer (Sgst.) with lyrics: 'dann vor Al - len - na - sche du! Na - sche du!'. The bottom staff is for Cello (Vcl.), marked 'arco' and 'pp'. Dynamics include 'p' for Flute, Oboe, Bassoon, and Viola; 'pp' for Violin and Cello; and 'p' for the Singer. A crescendo hairpin is shown above the Singer's staff.

(악보 계속)

61

Fl. *pp* *fp*

Ob. *pp* *fp*

Kl. (*>*) *pp* *fp*

Fg. *ff* *pp*

Hr. *fp* *fp* *fp*

Hfe. *ff*

VI. ohne Dämpfer *pp* ohne Dämpfer pizz. *p*

Vla. *sfpp* ohne Dämpfer *pp* ohne Dämpfer pizz. *p*

Sgst.

Vell. *sf* ohne Dämpfer *ff* *p* *dim.* *pp* pizz. *p*

<악보 18 - 2> 제 56마디 ~ 제 66마디

(당신에게 첫 번째로 그 맛을 드리겠어요! + 후주)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56-59) features a vocal line with the lyrics "dann - vor - Al - len - na - schedu! Na - schedu!" and a piano accompaniment starting with a *p* dynamic. The second system (measures 60-63)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sf* dynamics and some fermatas. The third system (measures 64-66)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various articulation marks and a final double bar line.

(4)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Mit der ich sonst viele Zeit verdorben,
Sie hat so lange nichts von mir vernommen,
Sie mag wohl glauben, ich sei gestorben!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
긴 세월을 헛되이 보냈네,
그들은 오랫동안 내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그들은 아마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을 지도 모른다!

Es ist mir auch gar nichts daran gelegen,
Ob sie mich für gestorben hält.
Ich kann auch gar nichts sagen dagegen,
Denn wirklich bin ich gestorben der Welt.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알 바 없네,
세상은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다 하여도.
나는 거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사실, 나는 세상에서 죽었기에.

Ich bin gestorben dem Weltgetümmel
Und ruh' in einem stillen Gebiet.
Ich leb' allein in meinem Himmel,
In meinem Lieben, in meinem Lied.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는 죽었기에
나는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네.
나, 혼자만이, 내 하늘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내 노래 안에서.

1901년 8월에 작곡된 것으로 그 해 여름 말리는 거의 죽을 뻔 했을 만큼 심한 하혈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4)

슬픔과 체념에 관한 시들과 침울하고 우울한 주제들이 말리의 가사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이 곡이 지닌 정서적 및 정신적 의미들은 말리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세상으로부터의 격리와 소외 의식이다. 25)

이 시의 9행인 ‘*Ich bin gestorben dem Weltgetümmel*’의 선율은 제 5교향곡의 <아다지예토(Adagietto)> 악장에서 나오며²⁶⁾, 교향곡과 가곡과의 소재의 공유관계, 유사성을 알 수 있다.

24) 이경숙, 앞의 책, p.140

25) Hainz Becker, 앞의 책, pp.153, 154

26) Wolfgang Schreiber, 「Gustav Mahler」, 김원명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1, p.177

하늘을 투영하고 있는 호수의 조용한 수면과 같은 느낌, 산사의 뜰과 같은 정갈한 공백감²⁷⁾, 꿈꾸듯 아름답고, 동양적인 신비로운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앞의 곡과는 달리 agogic²⁸⁾과 지시어가 많이 표시되고 있다.

시의 구성에 따라 3연 12행의 A-B-C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 7).

<표 7>

| 연 | 행 | 각운 | 유형 | 연 | 행 | 각운 | 유형 | 연 | 행 | 각운 | 유형 |
|---|---|-----------|----|---|---|---------|----|---|---|--------------|----|
| 1 | 1 | gekommen | a | 2 | 1 | gelegen | c | 3 | 1 | Weltgetümmel | e |
| | 2 | verdorben | b | | 2 | hält | d | | 2 | Gebiet | f |
| | 3 | vernommen | a | | 3 | dagegen | c | | 3 | Himmel | e |
| | 4 | gestorben | b | | 4 | Welt | d | | 4 | Lied | f |

이 곡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표 8>

| 형식 | 연 | 행 | 마디 | 조성 | 박자 | 빠르기 | |
|----|----|---|----------|-------|----------------|---|--------------|
| 전주 | | | 1~11 | F | 4/4 | Sehr langsam und zurückhaltend ²⁹⁾ | |
| A | 간주 | 1 | 1~3 4 | | 11~19 20~23 | | 4/4→2/4→4/4 |
| | | | | | 24~27 | | |
| | | B | 간주 | | 2 | | 1~4 38~42 |
| C | | 3 | 1~4 | 43~59 | F | | 4/4 |
| 후주 | | | 59~67 | | | | |

27) 이경숙, 위의 책, p.141

28) 연주할 때에 엄격한 Tempo나 Rhythm에 미묘한 변화를 붙여 다양한 색채감을 내는 방법

1) A 부분 (제 1마디 ~ 제 27마디, 1 ~ 4행)

제 1마디 피아노의 왼손 C음은 Harp의 깊은 울림을 연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담아 작지만 (*pp*) 아래로 깊이 떨어뜨린다. 왼손을 받아 나오는 피아노의 오른손 멜로디는 English Horn의 애수에 찬 음색을 떠올리면서 한 음 한 음 충분히 느껴 주면서도 legato로 이어지게 시작한다.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의 제 1마디 제 4박은 단선율로 나오던 멜로디에 약음기를 낀 Violin이 8박 동안 화음을 지속시키는 것을 피아노 반주에서는 제 1마디 제 4박과 제 2마디 제 3박으로 각 3박씩 나누어 지속하는데 이를 튀지 않고 고르게, 긴 흐름 가운데 화음을 느껴주며 올려준다.

제 2마디 제 2박부터 제 3마디까지 순차 하행하는 왼손은 상행하는 오른손과 반진행할 때 마치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이, 그리고 Fagot의 어둡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연주되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내 주도록 한다.

제 4마디는 8박 동안 울렸던 Violin이 사라지고, 하행하였던 Fagot이 도약 상행하면서 음역이 좁혀지는데 피아노 반주에서는 홀로 있어 외로운 마음을 표현하듯이 페달 없이 (*ohne Pedal*) 답답한 색채로 길게 legato해 준다.

제 5~6마디의 왼손은 Harp의 꿈꾸는 듯한 아르페지오로써 유연한 손목의 움직임과 페달의 사용으로 자연스레 퍼져 나가게 하며 자칫 도약 상행하면서 빨라지지 않도록 여유로운 느낌을 갖도록 한다.

29) International판에서는 *molto lento e ritenuto*로 표기하고 있으며, 원전악보 C.F.Kahnt 오케스트라 판에서는 *Äusserst langsam und zurückhaltend*으로 표기하고 있다.

English Horn으로 계속되던 오른손의 높은 멜로디가 제 7~9마디에 와서 Clarinet으로 바뀌는데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espr.*) 음색의 변화를 느껴주며, 오른손 내성의 움직임이 충분히 노래하여 불협화되었다가 해결되는 음정간의 색채를 표정 있게 표현한다. 제 9마디 왼손은 제 8마디 오른손 선율로부터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듯이 되 받아주고, Cello의 풍부하고 유려한 선율이 흘러내려 제 10마디 C음을 향해 가듯 충분히 노래 해 준다.

이어지는 제 10마디의 첫 박 아르페지오는 I도 화음에 6음(D)이 추가되어 신비로움을 더하며 주선율이 Violin으로 옮겨가는 부분이므로 한층 더 표정을 풍부하게 담아서(*espr.*) 노래해준다. 이 때 악상은 여전히 매우 여리게(*pp*), 페달은 임의로, 자유로이(*sempre pp und Ped. ad lib.*) 할 수 있다.

제 10~11마디의 첫 박의 아르페지오는 오케스트라 악보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피아노용 악보에서만 아르페지오로 작곡된 것임을 고려하여 마치 여러 악기가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 내듯이 여유를 가지고 풍부히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올려준다.

<악보 19 - 1> 제 1마디 ~ 제 11마디 (전 주)

Oboe
 1 Engl. Horn
 2 Klarinetten in B
 2 Fagotte
 Horn 1 in F
 Horn 2 in F
 Harfe
 Violin
 Singstimme
 Violoncelli
 Kontrabasse

pp
pp
pp
pp
p *pp*
 mi Dämpfer geteilt

(악보 계속)

Ob.

E. H.

Kl.

Fg.

Hr.

Hfe.

VI.

Vla.

Sgst.

Vcll.

Kb.

mit Dämpfer

mit Dämpfer [p] espr.

pp

pp

pp espr.

<악보 19 - 2> 제 1마디 ~ 제 11마디 (전 주)

Sehr langsam und zurücktend

Gesang

Klavier

pp

ohne Pedal

5

7 3 *

8

sempre *uno* Ped. ad lib. *pp*

제 10~11마디에 걸쳐 두 번 반복하는 motive C→D음은 5음 음계의 동양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제 11~12마디의 발전된 주선율 C→D→F→A로 이어지며 오른손 반주는 노래 선율의 축소된 형태로 C→D→F→A가 8분음표로 움직이고 왼손 반주에서는 동기 C→D음이 √√의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 말러의 대위법적 기교를 보여주므로 근접모방(stretto)³⁰되는 주제가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느껴주며 평온하고 안정된(ruhevoll) 느낌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 12~13마디는 세상에서 잊혀진 허망한 느낌을 담아 우울하고 어둡게 표현해주고 제 14마디 왼손은 세상이 내게서 떠나가는 듯(gekommen) 안타까운 느낌을 담은 아르페지오가 되게 한다. 제 14마디 제 4박~제 15마디 오른손은 ‘gekommen’의 멜로디를 그대로 이어 받아 한 번 더 노래해준다.

제 15마디 제 2박에서 노래는 in tempo로 나오기보다 망설이듯(zögernd) 여유롭게 시작하며 항상 아주 여린 악상(stets pp)을 유지하고 제 16마디 왼손은 마치 ‘헛되이 살아온 긴 세월(viele Zeit verdorben)’에 대한 절망을 표현하듯 노래 선율을 낮은 소리로 따라하는데 Cello와 Contrabass가 낮고 굵게, 음울하기까지 한 느린 움직임으로 표현함을 연상하면서 어둡게 legato 해 준다.

제 17마디 제 3, 4박의 오른손은 Fagot이 독자적으로 하행하여 제 18마디와의 연결을 이루고 있는데 한 음 한 음 액센트(>)로 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Fagot의 독특하게 튀는 유려한 음색을 연상하여 길고 충실하게 연결해준다.

제 18~19마디는 여유롭게 느려졌던 템포가 다시 a tempo로 돌아오면서 오랜 세월 내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30) 주제가 완결되기 전에 다음의 주제를 도입하여 같은 형태의 주제가 겹치는 형태

실어 2개의 Fagot만이 움직이고 있다. 단조로운 선율이나 간결하고 담담하기보다는 외로움과 고독이 배어나오듯 감정을 실어 페달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따로 사용하여 주어 연결한다.

간주 제 19마디 마지막 박부터 21마디는 Oboe가 제 19마디의 끝 음인 B음과 동음으로 받아 *espressivo*하면서 커졌다 작아짐을 반복하여 *melancolie*한 분위기를 이어 간다. 제 20, 21마디의 첫 음을 향해 강조(>)하여 셈여림의 기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며 제 22마디에 다시금 주제가 변형된 형태로 나와 처음의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제 21마디는 *poco rit.*로 마무리 하여 준다.

Fagot과 Oboe만 나와 축소되었던 오케스트레이션이 제 22마디에 와서는 Harp의 저음이 옥타브로 다소 강조된 듯(>) 낮게 울려 주어 음향의 폭이 넓어진다.

<악보 20 - 1> 제 11마디 ~ 제 23마디

(나는 세상을 잃었다. 긴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간 주)

Ob.

E. H.

Kl.

Fg.

Hr.

Hfe.

Vl.

Vla.

Sgst.

Vcll.

Kb.

pp

pp

pp

pp

pp

pp

pp

pp

p

p

p ruhigvoll

ohne Dämpfer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악보 계속)

15

etwas zögernd a tempo

Ob.

E. H.

Kl.

Fg.

Hr.

Hfc.

etwas zögernd

pp singend

VI.

Vla.

etwas zögernd a tempo

Sg.st.

mit der ich sonst vie-le Zeit ver-dor-ben; sie hat so lan-ge

Vcll.

pp

Kb.

pp

p espr.

(악보 계속)

19

molto espr. *poco rit. a tempo*

Ob. *p* *dim.*

E.H.

Kl.

Fg. II. *p*

Hr. *p*

Hfe.

VI.

Vla. *geteilt* *pp*

Sgst. nichts von mir vernommen,

Vcll.

Kb.

poco rit. a tempo

<악보 20 - 2> 제 11마디 ~ 제 23마디

(나는 세상을 잃었다. 긴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간 주)

11 *ruhevoll pp* *zögernd*

Ich bin der Welt ab - han - den ge - kom - men, mit

16 *stets pp* *pp a tempo*

der - ich sonst vie - le Zeit ver - dor - ben, sie hat so lan - ge nichtson mir vernom - men,

20 *poco rit.* *pp a tempo*

poco rit. *pp a tempo*

제 24마디는 잊혀져 간 자신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해 (*Sie mag wohl glauben*) 혼자 독백하듯이 *pp*로 노래하며, 제 25~26마디는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ich sei gestorben*)’ 생각할 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는데 1연의 중심어라 할 수 있는 ‘*gestorben*(사망한, 작고한)’은 6박 반의 긴 박으로 빠르지 않게(*nicht eilen*) 하며 이 때 피아노의 왼손은 내면의 외로움을 담아 내는 듯한 Horn을 연상하듯 성악성부와 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제 27마디는 제 26마디 1~2박의 노래 선율을 왼손이 동형 진행으로 되받아 주는데 여유를 가지고 긴 *legato*로 이어주면서 하행하고 자연스럽게 음량이 줄어들고 템포도 여유로와 지도록 하여 이어질 제 28마디부터의 변화에 대비한다.

<악보 21 - 1> 제 24마디 ~ 제 27마디

(그들은 아마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을 지도 모른다!)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en staves. From top to bottom, they are labeled: Ob., E.H., Kl., Fg., Hr., Vl., Vla., Sgst., Vcl., and Kb. The vocal line (Sgst.) includes the lyrics: "sie mag wohlglau-ben, ich sei ge - stor - - - - - ben!". The word "Nicht eilen" is written above the vocal line in measures 25 and 26. The Fg. staff has a first ending bracket labeled "I." in measure 25. The Hr. staff has a *pp* dynamic marking in measure 27. The score is in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4/4 time signature.

<악보 21 - 2> 제 24마디 ~ 제 27마디

(그들은 아마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을 지도 모른다!)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s a vocal line in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3/4 time signature. It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The lyrics are: "sie mag vohrlau - ben, ich sei ge - stor - ben!". Above the vocal line, there are dynamic markings: a piano (*p*) marking above the first measure, and a performance instruction "[nicht eilen]" (do not hurry) above the second and third measures. The second system is a piano accompaniment in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It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with the bass line mostly containing rests. The piano part features chords and melodic lines in the right hand, with some notes beamed together.

2) B 부분 (제 28마디 ~ 제 42마디, 5 ~ 8행)

B부분은 강조됨 없이 흘러가면서 급하지 않게(*Etwas fliessender aber nicht eilen*) 여유 있는 템포를 유지하며, 노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알 바 없다(*Es ist mir auch gar nichts daran gelegen*)’ 고 체념을 한다.

제 28마디 첫 코드의 아르페지오는 Horn과 현악기군이 어우러진 폭 넓고 부드러운 음향으로 색채감을 느끼면서 펼쳐주고 이 때 왼손 3연음부는 Harp로 연주하듯이 한 음 한 음 명료하면서도 길게 *legato* 한다. 제 28마디 노래 선율은 제 28마디 오른손의 마지막 박 ~ 29마디 $G \rightarrow E \flat \rightarrow F \rightarrow G \rightarrow A \rightarrow B \flat \rightarrow C \rightarrow D$ 음으로, 다시 제 30마디 반주의 $F \rightarrow G \rightarrow A \rightarrow B \flat \rightarrow C$ 으로 이어지는데, 마치 Violin으로 연주하듯이 감정을 충분히 표현(*espressivo*)하며 다소 강조하듯 *tenuto*한다. 특히 당김음을 사용함으로 노래의 ‘*gar nichts*(전혀 ~이 아니다)’의 이중적 부정을 강조함을 고려하여 주선율의 주고 받는 부분이 자연스레 연결되도록 귀 기울여 함께 한다.

계속되던 왼손 지속음(F)이 제 31마디 ‘*gestorben*(사망한)’을 노래할 때 비로소 $B \flat$ 음으로 바뀌면서 노래와 피아노 오른손 윗 선율이 유니즌하여 강조해주고 제 32마디와 제 33마디 하행하는 오른손 윗 선율 $F \rightarrow F \rightarrow E \rightarrow D$, $F \rightarrow F \rightarrow E \flat \rightarrow D$ 는 체념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제 34마디의 ‘나는 거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Ich kann auch gar nichts sagen dagegen*)’며 체념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특히 주저 앓듯 첫 음에 액센트(>)를 주었다가 작아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제 34~35마디에 걸쳐 임시표가 붙으면서 조성이 모호해졌다가

제 35~36마디 와서는 일시적으로 D장조로 바뀌어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사실,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Denn wirklich bin ich gestorben der Welt*)’고 인정하며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변화를 왼손의 계속되는 3연음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연한 팔목을 이용하여 Harp의 움직임 표현한다.

제 35마디 제 3박부터 제 39마디의 오른손 윗 선율은 Violin의 유연하고 긴 흐름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아닌 자신만이 안식할 수 있는 곳에서의 평화로움을 한껏 노래해준다.

세상에서 죽어서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였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와 슬픔이 특히 제 38~39마디의 간주에서 묻어 나오도록 아주 풍부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느낌(*Sehr ausdrucksvoll*)으로 충분히 표현하며, 이 때 제 38마디 제 1박과 제 3박의 rolling은 한 음 한음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악보 22 - 1> 제 28마디 ~ 제 39마디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알 바 없네. 세상은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사실, 나는 세상에서 죽었기에)

28

Hr.

Hfe.

VI. ohne Dämpfer
ohne Dämpfer
geteilt *p espr.*

Vla. ohne Dämpfer

Sg.st. Es ist mir auch gar nichts darange-le - gen, ob sie mich für gestor - ben

Vcll. geteilt

Kb. pizz. arco

Etwas fließender, aber nicht eilen

(악보 계속)

32

Ob. *sf* *p* *sf* *p* *pp subito*

E.H. *sfp* *sfp*

Kl. *sfp* *sfp* *a 2* *pp* *pp subito*

Fg. *p* *pp subito*

Hr. *p* *p*

Hfc. *mf*

Vl. *pp espr.* *geteilt* *pp*

Via. *pp*

Sgst. hält. Ich kann auch gar nichts sa-gen da ge-gen, denn

Vcll. *pizz.* *pp*

Cb. *pizz.* *pp*

(악보 계속)

36 Nicht schleppen

Ob.
E.H.
Kl.
Fg.
Hr.
Hfe.
Vl.
Via.
Sgst.
Vcl.
Kh.

wirk-lich bin ich ge stor-ben,ge-stor-bender Welt.

pizz.
pp
pizz.
pp

arco
p espr.

fließend

p

p

pp

pp

Nicht schleppen

<악보 22 - 2> 제 28마디 ~ 제 39마디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알 바 없네. 세상은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사실, 나는 세상에서 죽었기에)

28 *Etwas fließender, aber nicht eilen*

Es ist mir auch gar nichts dar-an ge-ge-gen, ob sie mich für ge-stor-ben

32 halt. Ich kann auch gar nichts sa-gen da-ge-gen, denn

36 Nicht schleppen *espress.*

wirk-lich bin ich ge-stor-ben, ge-ben der Welt.

sehr ausdrucks-voll

제 40~42마디 간주 부분은 매우 입체적인 부분이다.

제 40마디부터는 동요되었던 감정을 다시 억누르며(*Wieder zurückhaltend*) 각 성부들의 각기 다른 선율의 움직임에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를 참고하여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왼손 최저성의 짧은 C음은 마치 Harp로 튕기듯이, 옥타브 위의 지속음 C음은 Viola로 지속하듯, 그리고 왼손 최상성의 B \flat 음은 Cello로, 오른손 내성은 English Horn의 목가적인 선율로, 오른손 최상성은 Violin으로 평화로운 안식을 표현하듯 풍부한 감정으로(*espressivo*) 표현 한다.

<악보 23 - 1> 제 40마디 ~ 제 42마디 (간 주)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40-42 is titled "Wieder zurückhaltend". It features the following parts and markings:

- Ob. (Oboe):** Rests in all three measures.
- E. Hn. (English Horn):**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40 with a dynamic marking of *p*.
- Hfe. (Horn):** Rests in all three measures.
- VI. (Violin):**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40 with a dynamic marking of *p*, marked *schwebend* (floating), and *dim.* (diminuendo) leading to *ppp* (pianississimo) by measure 42.
- Vla. (Viola):** Sustained notes starting at measure 40 with a dynamic marking of *p*, leading to *ppp* by measure 42.
- Vcl. (Cello):** Sustained notes starting at measure 40 with a dynamic marking of *pp*, leading to *ppp* by measure 42.
- Kb. (Contra Bass):** Rests in all three measures.

Additional markings include "am Griffbrett" (on the fretboard) for the Viola and "Wieder zurückhalten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ection.

<악보 23 - 2> 제 40마디 ~ 제 42마디 (간 주)

40 Wieder zurückhaltend

40 pp espress.

제 43마디는 처음의 템포(*Tempo I*)로 돌아가 A부분의 변형된 멜로디가 나오는데 왼손 저성과 오른손 코드느린 움직임이 Harp와 Contrabass의 깊은 저음과 화성으로 폐허된 세상(*Weltgetümmel*)의 적막함이 흐를 수 있도록 아주 잠잠하면서(*pp*) 깊은 소리로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 44~48마디는 오른손과 왼손이 반진행하여 움직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데 고요한 곳에서 안식하듯(*Und ruh' in einem stillen Gebiet!*) 긴 호흡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진행시켜 주며 현악기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연상하여 음이 퍼져나가듯 긴 호흡으로 *legato* 하여 준다.

제 48마디 이어지는 오른손 3도 병진행은 부드러운(*weich*) Clarinet이 연주하듯 홀로 고독한(*allein*) vi도 화음의 거짓 종지로 노래를 이어가고 제 49마디 역시 오른손 멜로디는 Clarinet이, 왼손의 움직임은 Harp로 제 48마디의 느낌을 이어 나가며 제 50마디 '*allein*'에서 3연음부였던 왼손이 8분음표로 바뀌면서 다소 움직임

이 잦아들어 한 층 더한 고독함을 준다.

제 51마디 첫 박의 화음은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 상에서는 붙임줄로 연결되어 지속하면서 노래의 쉽표를 더 살려주고 있음을 유의하여 피아노 반주 시에도 화음이 두드러지지 않고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한다. 그리고 제 3박의 왼손은 다시 3연음부로 하늘로 올라가듯(*in meinem Himmel*) 펼쳐 띄워주고 이어지는 제 53마디 왼손의 마지막 박 쉽표는 흐트러짐 없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여 노래로 연결되도록 확장됨 없이(*ohne steigerung*) 같은 느낌으로 유니즌 한다.

제 54마디는 현악기(Violin, Viola, Cello)와 목관악기(Horn, Fagot)의 화음에 Oboe와 Harp의 멜로디가 어우러지는 부분이므로 풍부한 표정(*espressivo*)으로 했다가 제 55마디 첫 화음에 나의 사랑을 담아(*In meinem Lieben*) 부드럽게 아르페지오 해 준 뒤 클라이막스인 ‘*In meinem Lieben*’ 로 이어져 오른손이 Oboe와 같은 애절한 음색으로 감정을 절제하듯 노래와 함께 *pp*로 점차 하행하여 주고 제 56~57마디 왼손은 Cello가 충분한 vibrato와 함께 긴 라인으로 legato해 내려오듯 호소력 있게(*espressivo*) 노래해 준다. 마지막 57~58마디 ‘*in meinem Lied*’ 는 노래의 호흡과 감정선을 따라 가 주며 템포의 완급을 조절하여 낮은 아르페지오를 깊이 있게 울려준다.

19

Ob.

E.H.

Kl.

Fg.

Hr.

Hfe.

Vl.

Vla.

Sgst.

Vcll.

Kb.

ohne Steigerung

pp

ohne Steigerung
innig

Ich leb' allein in meinem Himmel, in meinem Lieben,

arco

pp

pp

pp

pp

pp

pp

pp

(악보 계속)

51

Ob. *p espr.*

E. H.

Kl.

Fg.

Hr. *p* *dim.*

Hfc. *pp*

Vi. *pp* *morendo* *pp*

Vla.

Sgst. *pp* *pp*
 in mei-nem Lie-ben, in mei-nem Lied.

Vcll. *p espr.* *ppp* *geteilt*

Kb. *geteilt* *pizz.* *arco* *ppp*

<악보 24 - 2> 제 43마디 ~ 제 59마디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는 죽었기에 나는 조용한 곳에서 안식한다.

나 혼자만이, 내 하늘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내 노래 안에서)

Tempo I

43 *pp*
 Ich bin ge - stor - ben dem Welt - ge - tum - mel! unt ruh' in - ei - nem stil

47 *Innig p espress.*
 -- len Ge - biet! Ich leb' al - lein

51 *pp ohne Steigerung*
 in meinem Him - mel, in meinem Lie - ben,

55 *pp*
 in mei - nem Lie - ben, in mei - nem Lied.

m.s.
m.d.
espress.

제 59마디 후주는 C부분의 주선율을 변형시킨 형태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죽었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안식하는 나 (*Ich bin gestorben dem Weltgetümmel Und ruh’ in einem stillen Gebiet*)’ 를 떠올려 새로운 곳에서의 평온한 느낌을 유지하며 예수에 젖은 톤의 English Horn이 제 61마디까지 이어졌다가 제 61마디 제 3박부터 Violin으로 이어지는데 세상에서의 허망함까지도 승화시키는 듯한 감정을 실어 역설적으로 환하게 빛나는 소리로 (*verklärt*) 부드럽게 연결한다.

제 61마디 제 3박~제 62마디 제 2박의 오른손 최상성은 제 62마디 제 3박~제 63마디의 멜로디로 확대되며 다시금 제 63~67마디로 확대되어 점차적으로 넓어지면서 세 번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음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사라져 가고 있다(*morendo*).

제 64마디 제 3박의 왼손 내성의 D음은 심금을 울리는 듯한 Cello의 호소력 있는 소리로 풍부한 느낌을 가지고(*espress.*) 여유 있게 진행하며 제 66마디에 이르러 I도 화성으로 종지함에 앞서 왼손 내성에 D음이 더해져 여운을 주었다가 제 67마디의 C음으로 해결되는 긴 하나의 흐름으로 노래한다.

<악보 25 - 2> 제 59마디 ~ 제 67마디 (후 주)

Musical score for measures 59 and 60. The score is written for a piano with a treble and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Measure 59 begins with a piano (*pp*) dynamic marking. The melody in the right hand consists of eighth and quarter notes, while the left hand provides a harmonic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single notes.

Musical score for measures 61 through 67. The score continues from the previous system. Measure 61 is marked with the number '61'.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morendo* (rushing to the end) and *espress.* (with expression). The right hand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lurs and ties, while the left hand continues with a steady accompaniment.

5) Um Mitternacht (한 밤 중에)

| | |
|--|--|
| Um Mitternacht hab' ich gewacht Und aufgeblickt zum Himmel! Kein Stern vom Sternengewimmel Hat mir gelacht um Mitternacht! | 한 밤 중에 나는 잠을 켜네 그리고 하늘을 쳐다 보았네! 별은 하나도 없고 깜깜한 밤만이 나에게 미소 짓네! |
| Um Mitternacht hab' ich gedacht Hinaus in dunkle Schranken! Es hat kein Lichtgedanke Mir Trost gebracht um Mitternacht! | 한 밤 중에 나는 생각 했네 어두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러한 밝은 상상도 나를 위로 해 주지 못했다 한 밤 중에! |
| Um Mitternacht nahm ich in acht Die Schläge meines Herzens! Ein einz'ger Puls des Schmerzes War angefacht um Mitternacht. | 한 밤 중에 나는 주의를 기울였네 나의 가슴은 뛰고! 슬픔의 맥박은 밤을 불태우네. |
| Um Mitternacht kämpft' ich die Schlacht, O Menschheit, deiner Leiden. Nicht konnt' ich sie entscheiden Mit meiner Macht um Mitternacht. | 한 밤 중에 나는 싸웠네, 오 인류여, 너의 고뇌여. 나는 해결 할 수 없었네 한 밤 중에 나의 힘으로는. |
| Um Mitternacht hab' ich die Macht In deine Hand gegeben! Herr! über Tod und Leben: Du hältst die Wacht! um Mitternacht! | 한 밤 중에 내게 힘이 주어졌더라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죽음과 삶을: 당신께서 지켜주소서! 한 밤 중에! |

현악기를 전혀 쓰지 않은 독자적인 편성으로 되어 있는 이 곡³¹⁾은 한 밤 중에 깊은 번뇌에 사로잡힌 시인의 불안한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신(神)께 의탁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과 안도의 환희를 엄숙하게 노래하고 있다.

31) 전제국, 앞의 책, p. 152

곡의 시작 부분의 선율은 말러의 칸타타 <비탄의 노래(Das Klagende Lied)> 제 2부의 시작 부분에 나오며, <대지의 노래(Das Lied von der Erde)>의 2악장 <가을에 고독한 사람(Der Einsame im Herbst)>의 모델이 되었다.³²⁾

전체적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조성의 변화가 많고 (b→B→b→f#→b→B) 반음계적 선율의 사용, 잦은 박자 변화 등이 특징이다.

시의 구성은 5연 20행이며, 제 1연~5연의 1행과 4행 각운은 ‘-acht’ 이고, 제 1연의 2행과 3행의 각운은 ‘-mel’, 제 2연은 ‘-ken’, 제 3연은 ‘-zens’, 제 4연은 ‘-den’, 제 5연은 ‘ben’ 으로 각운의 형태는 abba, acca, adda, aeea, affa이다.

이 곡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표 9>

| 형식 | 연 | 마디 | 조성 | 박자 | 빠르기 |
|------|---|---------|-----------|---|---|
| 전주 | | 1 ~ 4 | b | 3/2 | Ruhig gleichmässig (한결같이 고요하게) |
| A | 1 | 4 ~ 16 | b | 3/2→2/2→3/2→2/2→3/2→ 2/2→3/2 | |
| 간주 | | 16 ~ 21 | b | 3/2→2/2 | |
| B | 2 | 21 ~ 34 | b → B → b | 2/2→3/2→4/2→6/2→4/2→ 3/2 | |
| 간주 | | 34 ~ 36 | b | 3/2 | |
| A' | 3 | 36 ~ 45 | b → f# | 3/2→2/2→3/2→2/2→4/2→ 3/2 | |
| 간주 | | 46 ~ 49 | f# | 2/2→3/2 | |
| C | 4 | 49 ~ 67 | b | 3/2→2/2→3/2→2/2→3/2 | |
| 간주 | | 68 ~ 70 | b | 3/2 | |
| Coda | 5 | 70 ~ 94 | b → B | 3/2→2/2→3/2→2/2→3/2→ 4/2→3/2→4/2→2/2→3/2→ 4/2→5/2→4/2 | |

32) Stanley Sadie, "Gustav Mahler",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Vol.15, p. 519

1) A 부분 (제 1마디 ~ 제 21마디, 1 ~ 4행)

제 1마디 한 밤 중의 적막함을 나타내는 Clarinet처럼 테마는 잠을 깨어 하늘을 응시한 한 사나이의 불안한 마음을 느끼며 시작한다.

제 2마디 피아노의 맨 윗 성부는 별이 하나도 없는 적막한 하늘을 상징하며 왼손의 하행선율은 주인공의 절망적인 걸음걸이를 묘사하듯 제 3~4마디까지 같은 느낌으로 이어진다. 제 2마디 왼손 내성의 점 음음표(。)는 하행하는 4분 음표(↓)로 인해 6박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충분히 누르고 페달을 이용하여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여 다음 음으로 연결한다.

노래의 시작부터 제 6마디의 ‘*Um Mitternacht*(한 밤 중에)’는 제 1마디 Clarinet 테마의 아랫 성부(F# → G → F#)가 확대된 것으로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제 4마디 제 6박 F# 음부터 하행하는 오른손 윗 선율은 Flute에 이어 Fagot, Contrafagot이 옥타브로 하행하는 낮은 선율이 받아 나오며 그 사이 Clarinet의 한 밤 중의 적막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테마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여, 피아노 반주 악보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목관악기의 다양한 음색이 나옴을 염두 해 두어 긴 호흡으로 이어가되 음색의 변화를 느껴준다. 특히 하행하는 옥타브 왼손은 한 음씩 분리시키지 않고 한결 같은 음량으로 *legato*되게 연결하여 준다.

제 7~10마디는 ‘잠에서 깨어 하늘을 쳐다보는(*hab' ich gewacht und aufgeblickt zum Himmel!*)’ 구체적인 행위를 한 음 한 음 충분히 표현하되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하게(*sehr gehalten*) 한다.

제 11마디는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하나도 없는(*Kein Stern vom Sternegewimmel*)’ 고독함이 Flute와 Oboe의 홀로 있는 F# 음으로 표현되는데, 피아노 반주 시 6박 동안 한 음만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너무 작지 않은 음량으로 부각시켜 주며 이어지는 제 12~14마디에 걸쳐 하행하는 왼손은 ‘한 밤 중에 캄캄한 밤만이 나에게 미소 짓는다(*Hat mir gelacht um Mitternacht!*)’ 며 절망적인 심정을 왼손 하행 선율로 표현해준다.

제 16마디 간주는 오케스트라에서 Clarinet과 Fagot이 노래를 자연스레 받아 한 밤 중의 적막함을 나타내 주었다가 제 17마디 제 3박의 스포르잔도(*sf*)를 향하여 점점 커지는데 피아노로 표현할 때는 시인의 무거운 마음을 충분히 끌어내리듯(*herunterziehen*) 깊으면서도 날카로운(*grell*) 톤으로 느리게(*rit.*) 충분히 표현한다.

제 18마디는 본래의 템포로 돌아가 첫 음을 명확한 톤으로 크게(*sf*) 누른 다음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제 19마디까지 순차 하행하여 점차적으로 2연에서 펼칠 상상의 세계로의 몰입하듯 상상 속으로 빠진다.

제 20~21마디 오른손은 Clarinet과 Horn의 듀오처럼 ‘한 밤 중’을 묘사하는 심정으로 고요히 2번 반복한다.

<악보 26 - 1> 제 1마디 ~ 제 21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잠을 쫓네. 그리고 하늘을 쳐다 보았네!

별은 하나도 없고 캄캄한 밤만이 나에게 미소 짓네!)

Ruhig, gleichmäßig

2 Flöten

2 Oboen

2 Klarinetten in A

2 Fagotte

Kontrafagott

Hörner I. II in F

Hörner III. IV in F

2 Trompeten in F

3 Posaunen

Baßtuba

Pauken in E u. H

Singstimme

Harfen (mehrfach besetzt) und Klavier

Ruhig, gleichmäßig

(악보 계속)

6 1 I. *pp*

Fl. *pp*

Ob. *pp*

Kl. *pp*

Fg. *pp*

Kfg. *pp*

Hr. *pp*

Sgst. *pp*

nacht hab' ich ge-wacht und auf-geblekt zum Him-mel! Kein Stern vom Stern-ge-

1

12 2 rit. a tempo

Fl. *f* > *p*

Ob. *a 2* *p* < *sfp molto* *ff* > *p* (heruntersiehen)

Kl. *p* (heruntersiehen)

Fg. *p*

Kfg. *p*

Hr. *pp*

Sgst. *p ausdrucksvoll*

wim-mel hat mir ge-lacht um Mit-ter - nacht!

rit. a tempo

(악보 계속)

19

Fl.

Ob.

Kl.

Fg.

Kfg.

Hr.

Sgst.

pp

p

p

p

II.

?

#

The image shows a page of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19, 20, and 21. The score is arranged in a system with seven staves. From top to bottom, the staves are labeled: Fl. (Flute), Ob. (Oboe), Kl. (Clarinet), Fg. (Bassoon), Kfg. (Contrabassoon), Hr. (Horn), and Sgst. (Trombone).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Measure 19 shows the Flute and Oboe with rests. The Clarinet part begins with a piano (*pp*) dynamic, playing a series of notes. The Bassoon and Contrabassoon parts also begin with a piano (*p*) dynamic. The Horn part has a rest in measure 19 but plays a note in measure 20. The Trombone part has a rest in measure 19 but plays a note in measure 20. Measure 20 continues the Clarinet and Bassoon parts. Measure 21 shows the Clarinet and Bassoon parts continuing. The Flute and Oboe parts have rests in measure 21. The Horn part has a rest in measure 21. The Trombone part has a rest in measure 21. There are some markings above the Clarinet staff in measure 20, including a fermata and a question mark. There is also a sharp sign above the Horn staff in measure 20.

<악보 26 - 2> 제 1마디 ~ 제 21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잠을 깼네. 그리고 하늘을 쳐다 보았네!

별은 하나도 없고 캄캄한 밤만이 나에게 미소 짓네!)

Ruhig, gleichmaBig *p*

Gesang

Klavier *pp* L.H.

5 **Sehr gehalten**

Mit - - - ter-nacht hab' ich ge-wacht und auf-ge-blick zum

10 Him - mel! Kein Stern-vom-Stern-ge - wim - mel hat mir ge -

(악보 계속)

14

lacht um Mit - ter - nacht!

rit. grell

a tempo

p

sf

f

19

Um

p

2) B 부분 (제 21마디 ~ 제 34마디, 5 ~ 8행)

제 21마디부터는 아주 *legato*로 연결하여(*sehr gebunden*) 흐르듯이(*Etwas Fliessend*) 표현하며, 단조였던 조성은 제 23마디에 와서 B장조로 전조되는데 ‘어두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했다(*Um Mitternacht hab’ ich gedacht hinaus in dunkle Schranken*)’며 다소 상기된 억양으로 한 층 더 격렬한 어조(*steigernd*)와 풍부한 표정(*espress.*)으로 노래한다.

제 24~25마디의 ‘*hinaus*(~을 넘어서, ~밖으로)’의 움직임은 음들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모습을 로 묘사하며 이어지는 제 25마디 제 5박~제 26마디는 과거에 자신을 매고 있던 ‘어두운 울타리(*dunkle Schranken!*)’를 떠올리며 어두운 표정으로 노래하였다가 제 26마디 제 7박의 F# 음에 액센트(>)를 주어 강조하여 제 27마디 간주로 이어진다.

울타리를 넘어 자유를 향한 기대에 찬 듯한 움직임은 Oboe선율로 노래하듯 오른손에 그런 느낌을 담아 한 음 한 음 충분히 느껴주면서도 긴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그러나 제 29마디에 와서는 제 30마디부터 나올 ‘그러한 밝은 상상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Es hat kein Lichtgedanke mir Trost gebracht um Mitternacht*)’는 절망을 암시하듯 느려지거나 질질 끌지 않는(*nicht schleppen*) 범위 내에서 한 음 한 음 강조(>)하여 노래를 예비한다.

제 30~33마디는 제 21~28마디의 어두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 부분과 대조적인 느낌으로 결국 그러한 밝은 상상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절망을 점점 고조시켜() 노래하며 심리적 으로 불안한 상태를 피아노 오른손의 최상성부가 반음계적으로 나타

내고 있어 이는 마치 Oboe의 예리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연상하여 표현한다.

제 33마디 성악부는 위로 받지 못한 절망을 흐느끼듯이 한 음 한 음 강조하였다 느려지는데 이 때 피아노 반주도 성악가와 같은 감정 선을 타고 점점 작아지면서 2연을 마무리한다.

제 34~35마디 오른손의 주제 동기 첫 음은 액센트(>)를 주어 다소 강조시키며 왼손은 Horn의 낮은 선율이 마치 마음 깊이 빠져드는 절망을 묘사하듯 하행하며, 제 2연과 3연의 연결구로써 ‘한 밤 중에’ 하고 있는 단편적 생각들을 오른손으로, 지속하는 왼손의 라인으로 감정을 고요히(*pp*) 표현해준다.

<악보 27 - 1> 제 21마디 ~ 제 36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생각했네. 어두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러한 밝은 상상도 나를 위로 해 주지 못했다 한 밤 중에!)

Um Mit-ter - - nacht hab'ich ge - dacht hin - aus

(악보 계속)

25 Nicht schleppen

(Zart, aber sehr ausdrucksvoll.)
I. Solo

p *pp* *f*

a 2

pp *pp* *pp* *pp*

dim.

in dunk - le Schran - ke! Um Mit - ternacht! Nicht schleppen

30 rit. Tempo I

p *pp* *f* *pp*

pp *pp*

rit. Tempo I

Es hat kein Licht - ge - dan - ke mir Trost ge - bracht um Mit-ternacht!

rit. Tempo I

<악보 27 - 2> 제 21마디 ~ 제 35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생각했네. 어두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러한 밝은 상상도 나를 위로 해 주지 못했다 한 밤 중에!)

sehr gebunden **Etwas fließender**

21 *steigernd*

Um Mit - ter - - - nacht hab'ich ge - dacht - hin - aus in dunk - le

espress.

26 **Nicht schleppen**

Schran - ke! Um Mit - tenacht!

30 *f* Es hat kein Licht - - - ge - dan - ke mir Trost ge -

(악보 계속)

33 *rit.* *p* Tempo I

bracht um Mit - acht! Um

rit. *p* *pp*

3) C 부분 (제 36마디 ~ 제 45마디, 9 ~ 12행)

제 36~39마디는 ‘한 밤 중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Um Mitternacht nahm ich in acht*)’는 슬픔을 예고하는 듯 어둡고 깊은 톤의 저음을 노래하며 특히 제 39마디 왼손의 하행하는 B→A 선율은 제 40마디 C장조로의 일시적 조성변화를 유도하므로 신중한 톤으로 연결하여 준다.

제 40마디 오케스트라에서는 Clarinet과 Fagot이 아주 여리게 시작했다가(*pp*) 제 41마디 첫 음을 향해 점점 커져 ‘가슴 뛰는(*Die Schläge meines Herzens*)’ 긴장감을 잘 드러내 주지만, 피아노에서는 한 음이 지속하면서 *cresc.*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 40마디의 코드는 크지 않지만 제 41마디 첫 음을 향해 키워가는 느낌을 가지고 페달을 이용하여 울림을 더 주어 제 41마디 첫 음은 깊은 톤으로 노래와 함께 표현한다.

제 41마디 제 4박부터 하행하는 오른손의 선율은 다소 성급하게(*steigernd*), 마치 슬픔의 맥박이 밤을 불태우듯 제 43마디 불협화 코드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느낌으로 노래하며 늘어지지 않게(*nicht schleppen*)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이제껏 모호하던 조성은 제 45마디에 이르러 f# 단조로 자리 잡는다.

<악보 28 - 1> 제 36마디 ~ 제 45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주의를 기울였네

나의 가슴은 뛰고! 슬픔의 맥박은 밤을 불태우네)

36

Fl.

Ob.

Kl.

Fg.

Klg.

Hr.

Sgst.

Um Mit - ternacht nahm ich in Acht die Schläge mei - nes Her - zens!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page of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6 to 45. The score is written for a woodwind and brass ensemble.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Flute (Fl.), Oboe (Ob.), Clarinet (Kl.), Bassoon (Fg.), Bass Clarinet (Klg.), Horns (Hr.), and Saxophone (Sgst.). The music is in a key with one sharp (F#) and a 2/4 time signature.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dynamics (pp, f), articulation (accents), and phrasing slurs.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Saxophone staff.

(악보 계속)

Fl.

Ob.

Kl.

Fg.

Kfg.

Hr.

Sgst.

espr. steigend

p

Ein einz'ger Puls des Schmerzens war an - gefacht um Mitternacht.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page of a musical score, page 42. It features six staves of woodwinds (Flute, Oboe, Clarinet, Bassoon, and Contrabassoon) and a string section (Harp and Strings). The vocal line is at the bottom. The music is in 3/4 time and G major. The vocal line is marked 'espr. steigend' and 'p'. The lyrics are: 'Ein einz'ger Puls des Schmerzens war an - gefacht um Mitternacht.' The woodwinds and strings provide accompaniment, with the bassoon and harp playing a prominent role in the accompaniment.

<악보 28 - 2> 제 36마디 ~ 제 45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주의를 기울였네

나의 가슴은 뛰고! 슬픔의 맥박은 밤을 불태우네)

36 *pp*
Um Mit - ter - nach nahm ich in Acht die Schla - ge mei - nes

36

41 *steigernd* *Nicht schleppen*
Herzenst! >>> Ein einz - ger Puls — des Sch - mer - zens war an - gefacht um Mit - ter - nacht

41

4) D 부분 (제 46마디 ~ 제 70마디, 13 ~ 16행)

제 46~47마디 피아노의 왼손은 깊은 소리로 하행하는 Horn을, 제 48마디 오른손은 관 속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 투명한 Flute의 톤을 연상하여 한 밤 중에 흐르는 고요한 적막함을 표현한다.

제 49~50마디에 걸쳐 두 번 반복하는 피아노의 왼손 motive(↓♪ ↓)의 첫 음은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Clarinet의 울림 있는 소리로 다소 강조하며(>) 이어지는 제 51~52마디는 한 밤 중에 고뇌와 싸울 수 밖에 없는 번민을 Horn과 Clarinet의 낮은 소리의 화음으로 움직인다.

제 54~55마디는 제 53마디부터 점점 커져()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뇌(*Leiden*)를 6박의 긴 음가로 시어를 강조하여 풍부하게 표현(*sehr ausdrucksvoll*)한다.

제 56마디부터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나(*Nicht konnt' ich sie entscheiden*)’의 모습을 보고 고통을 느끼듯 격렬한 움직임(*Fliessend*)으로 노래할 때 성악가의 긴 호흡에 따른 유동적인 템포에 맞춰 진행한다. 진행되는 각각의 화성은 적절한 성악 선율선을 따라가며 깊이 있는 충분한 터치로 울려준다.

제 59마디 왼손의 낮은 옥타브 진행은 오케스트라 반주 시 Fagot과 Contrafagot으로, 이어 받는 제 60마디 오른손은 절망의 감정을 표현(*espressivo*)하듯 Horn의 톤을 연상하여 한 음 한 음 적절하게 하행하여 준다.

제 61~63마디는 한 밤 중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어둡고 깊은 톤으로 표현하며 이어지는 제 64~66마디는 제 16~19마디와 동일한 느낌으로 진행되며 제 65마디의 최상성부 A음은 Oboe의 갑작스런 포르티시모(*ff*)로 느낌을 확대하였다가 13도

아래로 도약함을 유의하여 충분히 넓고 강한 느낌으로 올려 준다.

이어지는 제 66~67마디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반음계적 하행을 하는데 제 66마디 왼손 하행은 Horn, 제 67마디의 왼손 하행에서는 목관 악기군으로 계속되던 반주에서 금관 악기 Tuba의 등장으로 그 음색과 규모에 변화가 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음색과 무게감으로 표현해준다. 제 68~70마디 피아노의 오른손은 Clarinet음색을 생각하면서 ‘한 밤 중’의 테마를 고요히 그러나 호소력 있게 두 번 반복하고 왼손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음을, 그리하여 체념과 회한이 섞인 마음을 하행하는 선율로 표현해낸다.

<악보 29 - 1> 제 46마디 ~ 제 70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싸웠네, 오 인류여, 너의 고뇌여.

나는 해결 할 수 없었네, 한 밤 중에 나의 힘으로는)

48

Fl. *f*

Ob. *p* *sehr ausdrucksvoll* *p* *(f)*

Kl. *pp* *p*

Fg. *pp* *p*

Kfg. *pp*

Hr. *a 2* *pp* *III.* *p*

Sgst. *molto espr.* *pp*

Um Mit-ter - nacht kämpf' ich die Schlacht, o Mensch-heit, deiner Lei - den.

(악보 계속)

56 Fließend

mit großem Ausdruck

Nicht konnt' ich sie ent - schei - den

61 rit. a tempo rit.

Schalltr. auf: a2

ffp molto

weich

mit mei-ner Macht um Mit - ter - nacht.

rit. a tempo rit.

(악보 계속)

68 **Tempo I**

Fl.

Ob.

Kl.

Fg.

Kfg.

Hr.

Btb.

Sgst.

Tempo I

Um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page of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68, 69, and 70. The tempo is marked 'Tempo I'. The score is for a woodwind and brass ensemble.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Flute (Fl.), Oboe (Ob.), Clarinet (Kl.), Bassoon (Fg.), Contrabassoon (Kfg.), Horns (Hr.), Trombones (Btb.), and Bass Drum (Sgst.).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In measure 68, the Clarinet and Bassoon play a melodic line starting with a piano (*p*) dynamic. In measure 69, the Horns and Trombones play a melodic line starting with a pianissimo (*pp*) dynamic. In measure 70, the Bass Drum plays a single note marked with a *pp* dynamic and the instruction 'Um'.

<악보 29 - 2> 제 46마디 ~ 제 70마디

(한 밤 중에 나는 싸웠네, 오 인류여, 너의 고뇌여.

나는 해결 할 수 없었네, 한 밤 중에 나의 힘으로는)

46 *pp*
Um Mit - ter - nacht

46 *p*

51
kampfl' ich dßchlacht, o Mensch heit, dei - ner Lei - - den

51 *espress.*

56 *Fließend*
Nicht konntfch sie ent-schei - - - - - den

56 *pp* *p*

(악보 계속)

61

mit mei - ner Macht um Mit - - ter - nacht.

rit.

p

66

Zurückkehren

Tempo I

pp

Um

p

pp

5) Coda (제 70마디 ~ 제 94마디, 17 ~ 20행)

제 70마디의 시작은 다시 ‘한 밤 중에’의 테마로 고요함과 적막함을 나타내었다가

제 71~72마디 왼손 하행은 Tuba의 장중한 톤을 연상하여 앞과는 다른 분위기를 예견하듯 진행한다.

제 73~76마디에 걸쳐 노래와 반주는 인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나에게 힘이 주어졌더라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hab' ich die Macht in deine Hand gegeben*)’ 고 고백하여 얻어지는 자유와 평화를 고조시켜(*cresc.*) 표현한다. 특히 제 74마디 제 3박 옥타브 B음~제 76마디 제 4박 피아노의 오른손은 Trumpet의 강한 음색처럼 한 음 한 음 강조하여 신께 의탁함에 자유로워진 자신의 영혼의 기쁨을 담아 좀 더 강력하게 박차를 가하여(*mit mächtigem Aufschwung*) 표현하며 제 76마디 왼손 F# 옥타브 진행은 Horn에 의한 희망에 찬 팡파레(*fanfare*)를 연상하여 힘차고 깊이 있는 소리로 울려준다.

더욱 고조된(*Più mosso*) 느낌으로 제 77~79마디의 첫 코드는 신을 간절하게 부르듯(*Herr!*) Horn, Trumpet, Trumbone의 어우러진 음색을 연상하여 강하고 깊은 터치로, 트레몰로와 아르페지오의 마치 신의 위대한 영광을 노래하듯 Timpani와 Harp의 강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제 78~83마디는 점차적으로 아주 재촉하여(*sehr drängend*) 느낌을 몰아간다.

제 80~82마디 ‘죽음과 삶(*Tod und Leben*)’ 을 노래할 때 피아노는 Trumpet의 한 음 한 음 강조함(*sf*)을 연상하여 밝고 분명한 톤으로 표현하며 피아노 악보에 없는 오케스트라 악보의 *accel.*를

참고하여 다소 앞으로 나아가듯 진행시킨다.

제 82~83마디의 F# 옥타브 음은 앞에 나온 Horn의 팡파레가 확대된 형태로 한 층 더 펼쳐주듯이 올려주며 이어지는 제 84~87마디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다(Du hältst die Wacht!)’ 며 해방된 영혼이 소리 높여 신께 찬미하는 천상의 느낌을 실어 강하게 펼쳐준다.

제 88~91마디는 고조되어 빨라졌던 느낌을 신중하게 억제하듯 (Zurückhalten) 당신(Du)께 맡김을 강하게 반복하여 표현하는데 모든 음들을 한 음 한 음 강조하여 간절함을 더하여 주었다가 제 91마디에 와서 폭넓게 (Breit) 펼쳐준다.

제 91~92마디 마지막 가사 ‘um Mitternacht’ 를 노래하는 부분에서 피아노는 강하면서도 긴 라인으로 성악가의 호흡에 맞춰 진행시키고 제 93~94마디의 후주는 매우 느리고 여유 있는 템포 (Largo)로 오케스트라 전체 모든 악기가 연주하듯, 신께 드리는 기도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듯 충분히 넓게 펼쳐 주었다가 마지막 트레몰로는 점점 소리를 줄이고 속도를 늘여 종래에는 희미하게 사라지듯 (verklungen) 충분한 길이로 표현한다.

<악보 30 - 1> 제 70마디 ~ 제 94마디

(한 밤 중에 내게 힘이 주어졌더라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죽음과 삶을: 당신께서 지켜주소서! 한 밤 중에!)

Musical score for woodwinds and strings, measures 70-94. The score is in G major and 4/4 time. The instruments are Flute (Fl.), Oboe (Ob.), Clarinet (Kl.), Bassoon (Fg.), Bassoon (Kfg.), Horns (Hr.), Trombone (Btb.), and Trombone (Sgst.). The score shows dynamics such as *pp*, *p*, and *cresc.*. The lyrics are: "Um Mit-ternacht hab' ich die".

(악보 계속)

74 Mit mächtigem Aufschwung 10 Più mosso

Macht in dei-ne Hand ge - ge - ben! Herr!

Mit mächtigem Aufschwung 10 Più mosso

(악보 계속)

78 *sehr drängend* *accel.* *Ganze Takte*

Hr. *ff* (*p*) *accel.*

Trp. *ff* (*p*) *accel.* *f*

Pos. *ff* (*p*) *accel.*

Btb. *ff* (*p*)

Pk. *ff* *pp* H nach B

Sgst. Herr ü - ber Tod und Le - ben: *accel.*

Hfe. u. Klav. *fff* *accel.*

sehr drängend

(악보 계속)

83 **Tempo I**
(♩ = wie zuletzt ◦)

Hr.

Trp. *mf* *f* *mf*

Pos. *mf* *f* *mf*

Btb.

Pk. *tr* *ff* *p*

Sgst. Du hältst die Wacht! Du

Hfe. u. Klav. *fff* *gliss.* NB. 22

11 *(♩ = wie zuletzt ◦)* **Tempo I**

(악보 계속)

86

Hr.
 Trp.
 Pos.
 Btb.
 Pk.
 Sgst.
 Hfe.
 u. Klav.

hältet die Wacht!

gliss.
 12
 10
 22

NB. Das Klavier führt das *glissando* stets auf den weißen Tasten aus

(악보 계속)

93 **Largo**

Fl. *f* *p*

Ob. *f* *p*

Kl. *f* *p*

Fg. *f* *p*

Kfg. *f* *p*

Hr. *f* *p*

Trp. *f* *p*

Pos. *f* *p*

Btb. *f* *p*

Pk. *f* *p*

Sgst. *nacht!*

Hfe. u. Klav. *ff* *sempre ff*

Largo

<악보 30 - 2> 제 70마디 ~ 제 94마디

(한 밤 중에 내게 힘이 주어졌더라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죽음과 삶을: 당신께서 지켜주소서! 한 밤 중에!)

70 *pp*
Um Mit-ter-nacht hab' ich die Macht in

75 *Mit mächtigem Aufschwung* *ff Più mosso* *sehr drängend.*
dei-ne Hand ge - ge - ben! Herr! Herr

79
ü - - - ber Tod und Le - ben: Du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70-74) features a vocal line starting with a piano (*pp*) dynamic and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cresc.* marking. The second system (measures 75-78) is marked *Mit mächtigem Aufschwung* and *ff Più mosso*, with a *sehr drängend.* instruction.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ff* dynamic and a *(s.....)* marking. The third system (measures 79-84) continue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악보 계속)

84 **Tempo I** (*♩ wie zuletzt die ○*)
stets mit stärkster Tongebung

hältst die Wacht! Du

86 **Zurückhalten**

hältst die Wacht! Du!

89 **Breit** *f* *rit.*

Du hältst die Wacht um Mit - ter -

93 **Largo** *fff*

nacht!

verklingen

Ⅲ. 결 론

세기 전환기의 저명한 관현악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 1860~1911)는 후기 낭만주의를 근대음악으로 이끈 진보주의적 음악가이다.

말러의 작품으로는 10개의 교향곡과 40여개의 가곡이 있는데, 가곡들의 반 이상을 관현악으로 편곡했을 뿐 아니라 교향곡을 자신의 가곡에 기초하여 작곡하는, 서로 상당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있어 가곡은 웅대한 관현악적 개념의 중심이었으며, 기존의 가정과 공연장에서 친숙했던 가곡은 말러에 이르러 대규모 공연장으로 옮겨가는 가곡으로 바뀌었다. 또한 그의 가곡 반주의 대부분은 규모가 크고 정교하여 노래가 나타낼 수 없는 색채를 보강하고 있으며 강렬하기보다 정갈하고 대위법적이다.

그의 중기 가곡은 초기 작품과는 달리 단호하고 솔직한 인간 생활을 소재로 사용했으며 잘 정비된 질감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다섯 곡 모두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판이 공존하나 두 번째 곡 「Liebst du um Schönheit」의 오케스트라 편곡은 말러 자신이 아닌 막스 푸트만(Max Puttmann : 1864~1935)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곡의 내용상 연관성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발췌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각 곡들은 비교적 규칙적인 운율로 반복되고 있으며 서정적이면서도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같은 감정선을 타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하게 융화된 합(合)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피아노 악보보다 오케스

트라 악보에서 더 구체적인 악상기호와 나타냄 말이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더 섬세한 표현에 이르도록 한다.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의 각 다섯 곡을 순서대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곡 「Ich atmet' einen linden Duft」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 받은 보리수 가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작품 전반에 걸친 피아노의 8분 음표 음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 악보에서는 8분 음표의 시중 거의 같은 유형의 반주이지만, 오케스트라 반주 악보를 참고하여 각 악기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줌으로써 색채를 달리 하며, 신선하고 투명한 톤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리수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호흡을 아래로 가다듬고 relax시켜 표현해준다.

두 번째 곡 「Liebst du um Schönheit」는 말러가 그의 아내 알마(Alma Mahler : 1879~1964)에게 헌정한 사랑노래로 5곡 중 유일하게 피아노 반주를 위해 작곡된 곡이다. 시의 중심어가 강박에 오도록 잦은 박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6마디 단위로 4번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확대되어 고조된 느낌으로 진행하여 준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에서 *p* 또는 *pp*로 표현됨에 유의하여 음악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한다. 후기 낭만주의의 특징인 반음계 진행이 간주와 후주에서 돋보이며 사랑만을 위한 사랑을 해달라는 간절한 사랑의 노래이므로 열정적이면서도 깊은 애정을 담아 표현한다.

세 번째 곡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는 별집을 짓고 있는 꿀벌에 비유하여 작곡 중인 곡이 완성될 때까지 엿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랑스런 노래이다. 저성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1관 편

성으로 된 오케스트라를 참고로 투명한 음색을 유지하도록 한다. 8분 음표의 빠른 진행은 별들의 움직임에 묘사하듯 무겁지 않게 경쾌한 느낌을 주어야 하며 약박에 들어가는 액센트(>), 스포르짤도(sf)를 살려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해야 한다. 또한 대조적인 악상으로 표현의 대비를 주도록 한다.

네 번째 곡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은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떠나 자신만이 인식할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말리의 심정을 담은 곡으로써 전반적으로 여유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여 동양적인 5도 음계를 느끼며 신비로운 색채를 표현하도록 한다.

반음계로 움직이는 간주는 세상에서 잊혀진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와 슬픔을 담은 듯 표현하도록 하며 곡 전반에 걸쳐 축소, 확장, 변형되어 나타나는 대위법적인 특징을 느끼며 잘 드러내도록 한다.

다섯 번째 곡 「Um Mitternacht」는 한 밤 중의 깊은 번뇌에 사로잡힌 시인의 불안한 심정을 표현하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신께 의탁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과 안도의 환희를 엄숙하게 노래한 곡으로써 현악기를 전혀 쓰지 않은 독자적인 편성으로 되어 있으며 형식에 매이기보다 가사의 연결과 내면의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어 표현한다.

이 곡은 성악 선율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는 성악가와 같은 감정선을 타 함께 노래하면서 느낌을 진행시켜 주는 것에 유의한다. 그러나 단선율과 화성의 단순한 진행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반주 악보로 연주함에 있어 오케스트라의 목관→금관→타악기 순으로 더해져 가 마침내 신께 의탁하여 얻어지는 자유의

환희를 웅장한 음향으로 극대화 시켜 음악적 절정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부분을 표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본 작품을 연주하기 앞서 피아니스트는 가사(詩)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작곡자가 의도하는 올바른 음악적 표현을 위해 가사 하나 하나에 따른 노래와 반주의 유기적 관계를 연구하여야 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표기된 나타냄 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러의 가곡이 관현악적 성악곡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피아노 반주 시 오케스트라 악보와의 비교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작곡자가 의도하는 바를 섬세하게 표현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및 번역서

- 김문자, 노영해, 박미경, 이석원, 허영한.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 음악사 2」. 서울 : 심설당. 1993
-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서울 : 삼호출판사. 1998
- 박신준. 「최신명곡해설전집」. 서울 : 세광출판사. 1983
-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서울 : 삶과 꿈. 2003
- 전재국. 「말러」. 서울 : 음악세계. 2002
- 전재국.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음악학 총서<20세기 작곡가 연구 I>」. 서울 : 음악세계. 2003
-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1995
- Adorno, Theodor W. 「말러-음악적 인상학」. 이정하 역. 서울 : 책세상. 2004
- Floros, Constantin. 「음악의 유산 Hertige of Music」. 편집부 역. 서울 : 중앙일보사. 1986
- Gorrell, Lorraine. 「19세기 독일 가곡 The Nineteeth-Century German Lied」. 심송학 역. 서울 : 음악춘추사. 1998
- Grout, Donald, Jay. 「서양음악사 A History of Western Music」. 김진균 외 2인 공역.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1

- Michels, Ulrich. 「음악은이 dtv-Atlas zur Musik」. 홍정수,
조선우 편저.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6
- Schreiber, Wolfgang. 「말러 Gustav Mahler」. 김원명 역. 서
울 : 삼호출판사. 1991
- Shindler, Alma. 「영혼의 여자-알마」. 김정충 역. 서울 : 작가
정신. 1987

2. 외국 서적

- Bauer-Lechner, Natalie. 「Recollections of Gustav Mahler」.
London, New York City : Latimer
Trend & Company Ltd. 1980
- Grange, Henry-Louis De La. 「Gustav Mahler, Vienna : The
years of Challenge (1897-1904)」.
vol. 2.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Kennedy, Michael. 「Mahler」. London , Melbourne and
Toronto : Dent. 1974
- Lebrecht, Norman. 「Mahler Remembered」. New York City :
W. W. Norton & Company. 1988
- Sadie, Stanle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3. 사 전

김정태. 「음악용어사전」. 서울 : 삼호출판사. 1977

사전 편찬 위원회.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2

양철우. 「현대독한사전」. 서울 : 교학사. 2000

한국외국어대학교이태리어과. 「이한사전」.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4. 논 문

김혜옥. 「Gustav Mahler의 Rückert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03

변세원. 「Gustav Mahler의 Lieder nach Rückert에 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2004

이규선. 「Gustav Mahler의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의 피아노 반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0

5. 악 보

Mahler, Gustav. 「Lieder nach Texten von Friedrich Rückert für eine Singstimme mit Orchester」. Wien : C.F.Kahnt . 1984

Mahler, Gustav. 「Lieder nach Texten von Friedrich Rückert für eine Singstimme mit Klavier」. Wien : C.F.Kahnt . 1984

Mahler, Gustav. 「Rückert - Lieder」. Florida : Edwin F. Kalmus & Co. Inc.

Mahler, Gustav. 「24 Songs for Voice and Piano」 : New York City : International music company

6. 웹 사이트

<http://en.wikipedia.org>

<http://www.musicology.co.kr>

<http://www.naxos.com>

ABSTRACT

A Study on the Accompaniment of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 by Gustav Mahler

Lee, Kyoung Mee
Dept.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 s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the Accompaniment of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 by Gustav Mahler, who led the transition between the late romantic period to modern period in music history.

Each of the five pieces of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 is not related with the contents but the years of composition are all focused in 1901~1902 and they are all composed for lyric poetries in common. In 1905, those songs were published under the name of 「Sieben Lieder aus letzter Zeit」 including these two songs, 「Revelge(1889)」 and 「Der Tamboursg ' s sell (1901)」.

Except the second song, 「Liebst du um Schönheit」 all the other four songs were first performed in a small room in

Wien under the name of “Lieder Abends mit Orchester” and this thesis was written by the order of the first performance, 「Ich atmet’ einen linden Duft」 →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 「Um Mitternacht」 .

The 「Ich atmet’ einen linden Duft」 is a piece that sings the mind of main character, who are smelling the subtle perfume of a linden branch given by the one’s lover.

The second piece, 「Liebst du um Schönheit」 is a love song dedicated to Mahler’s wife Alma(Alma Mahler : 1879~1964). In this song, the love is insinuated as a beauty, youth, treasure asking to love him without any terms.

The third piece, 「Blicke mir nicht in die lieder」 is a story insinuated to bees hating one who steals a glance when they are not completed building their beehives and Mahler is warning people not to steal a glance before he finishes writing his songs.

Also the fourth piece,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represents the Mahler’s mind of wanting to live in a peace where he can rest besides the complicated world and the fifth piece, 「Um Mitternacht」 keenly describes the poet’s deep anguish which leads him to anxious feeling in the midnight, then at the conclusion, he finally percieves a truth of his powerlessness and give his all souls to god then solemnly sings for the realization and the joy of relief he has

gained.

By substituting piano to orchestra as accompanying instrument, Mahler had changed the essence and the size of the art songs of the 19th century.

Following the trace of Wagner(Wilhelm Richard Wagner : 1813~1883), Mahler and Richard Strauss(1864~1949) were the most prominent conductors of the transition of 19th and 20th century and they both were gifted for orchestration, so that they naturally could make various sound and appropriate timbre for the orchestra.

This thesis mostly compared the role of the piano and orchestra by using the plot of the lyrics rather than the discussing on the depth of the technic of composing.

Each of five songs has Mahler's own piano accompaniment as well as the orchestra accompaniment, except the second piece, 「Liebst du um Schönheit」 known as orchestrated later by Max Puttmann(1864~1935) so thus the first, third, fourth and fifth songs are shown the orchestral accompaniment first and then piano accompaniment follows in this thesis. Also the thesis concentrated on the tone colour of piano based on the text. As the second piece doesn't have Mahler's own orchestral edition, it is shown the piano accompaniment on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wo versions of the accompaniments of the songs, except the second piece which

is only written for piano, I found out that not only the analysis of the lyrics, but also lots of efforts and study are needed for pianists to convert the orchestral colour to the dimensional expression on piano as well.